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9차 춘계 학술대회 일정표

09:30~10:00	등 록		
10:00~10:20	개회식		사회: 기준성(서울문예대)
	개회사 : 육효창(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회장/ 서울문예대) 축 사 : 김혜숙(동국대 사범대학장) 환영사 : 김애주(동국대 CML 창의인성 연구소장)		
10:20~11:00	기조강연: 한국어의 변화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접근		사회: 이길원(동아대)
	발표: 민현식(서울대/ 전 국립국어원장)		
11:00~11:10	휴 식		
11:10~12:00	주제특강: 언어변화와 한국어교육		사회: 서혁(이화여대)
	발표: 조현용(경희대 국제교육원장)		
12:00~13:30	점 심		
13:30~14:20	초청특강: 2010년대 독일어 교사 양성 과정의 새 움직임		사회: 김성희(서강대)
	발표: 안미란(독일문화원 교원 양성/ 교육협력부)		
14:20~14:40	휴 식		
	제1분과 한국어 지식 영역 교육 사회: 최권진(인하대)	제2분과 한국어 기능 영역 교육 사회: 이미향(영남대)	제3분과 한국어 태도 영역 교육 한국 언어문화 일반 사회: 나삼일(대전대)
14:40~15:10	플립드 러닝 기반 한국어 어휘 학습의 가능성 모색 : 연어(collocation)를 중심으로 - 발표: 김규훈(대구대) - 토론: 김호정(국민대)	토론에서의 한국어 학습자의 반론 양상 연구 - 발표: 김소연(연세대) - 토론: 최은경(동국대)	노량진 공간의 사회적 특성 연구 :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생산 이론을 중심으로 - 발표: 양혜잔신주철(한국외대) - 토론: 고경태(고려대)
15:10~15:40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부사 어순 습득 연구 - 발표: 하지혜(이화여대) - 토론: 김성주(동국대)	학습자 요구를 반영한 학문목적 과정의 뉴스읽기 수업 - 발표: 정인아(서울대) - 토론: 유해준(서원대)	한국어교육에서 교수 자료로 활용된 문학 작품 연구 : 초기 교재를 중심으로 - 발표: 황사운(영남대) - 토론: 강남옥(호서대)
15:40~16:00	휴 식		
16:00~16:30	한국어 모음 ‘ui’ 소리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 : 중국어 모음[ui]와 대조하여 - 발표: Wenkai,Cao(한국외대) - 토론: 윤은경(대구사이버대)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환경에 따른 읽기 동기 분석 - 발표: 전형길(고려대) - 토론: 이승연(서울시립대)	융복합으로서의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의의 : 문학을 기반으로 - 발표: 전두리(동국대) - 토론: 신윤경(인천대)
16:30~17:00	국어기본법상 한국어 교원자격 제도 연구 : 현황 및 발전 방향 - 발표: 김민수(상명대) - 토론: 백인선(국민대)	쓰기 지식을 중심으로 한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발표문 분석 - 발표: 이수정(서울대) - 토론: 박주영(서울문예대)	한·중 한국어 교재의 문화 교육과 관련 삽화 비교 연구 - 발표: Guan, Guan(영남대) - 토론: Weixia, Fan(남서울대)
17:00~17:10	폐회식		사회: 기준성(서울문예대)
	폐회사: 육효창(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회장/ 서울문예대)		
17:10~17:30	총회		사회: 기준성(서울문예대)

목차

개회사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회장 육효창)	4
축사 (동국대학교 사범대학장 김혜숙)	5
환영사 (동국대학교 CML(Creative Mindful Leadership) 창의원성 연구소 소장 김애주)	6
기조 강연 : 한국어의 변화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접근 (민현식)	7
주제 특강 : 언어 변화와 한국어교육 (조현용)	73
초청 특강 : 2010년대 독일어 교사 양성 과정의 새 움직임 (안미란)	74
제1분과 : 한국어 지식 영역 교육	15
플립드 러닝 기반 한국어 어휘 학습의 가능성 모색 (김규훈)	25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부사 어순 습득 연구 (하지혜)	17
한국어 모음 ‘꺠’ 소리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 (Wenkai, Cao)	08
국어기본법상 한국어 교원자격제도 연구 (김민수)	59
제2분과 : 한국어 기능 영역 교육	9
토론에서의 한국어 학습자의 반론 양상 연구 (김소연)	1
학습자 요구를 반영한 학문목적 과정의 뉴스 읽기 수업 (정인아)	21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동기 구성 요인 연구 (전형길)	31
쓰기 지식을 중심으로 한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발표문 분석 (이수정)	51
제3분과 : 한국어 태도 영역 교육 / 한국 언어문화 교육 일반	761
노량진 공간의 사회적 특성 연구 (양혜진·신주철)	8
한국어교육에서 교수 자료로 활용된 문학 작품 연구 (황사윤)	11
융복합으로서의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의의 (전두리)	91
한·중 한국어 교재의 문화 교육과 관련 삽화 비교 연구 (Guan Guan)	0
부록 1. <한국언어문화학> 수록 논문 목록	522
부록 2. 연구 윤리 규정	2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제19차 춘계학술대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에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목멱골에 위치한 동국대학교에서 풍성한 학문적 교류의 학술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창의인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모든 연구의 근본인 만큼, 이번 학술대회를 동국대학교 창의인성 연구소와 공동주최하게 된 것도 우리 학회로서는 매우 기쁘고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김혜숙 학장님과 창의인성 연구소 김애주 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학술대회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여러 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술대회를 후원해주신 도서출판 「하우」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의 주제는 ‘한국어의 변화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접근’입니다. 한국어언어문화 교육에 있어서 한국어의 변화라는 이슈는 크게 주목받기 어려운 대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어언어문화 교육의 내용은 구태의연한 모습을 띠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강조하는 한국어언어문화 교육에 있어서 ‘실제적인 한국어’가 강조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국어의 변화라는 주제는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어 살펴봐야 할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학회에서는 이번 학술대회에 이 문제를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도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먼저 기조 강연은 국립국어원장과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장을 역임하시고 한국어언어문화 교육과 한국어 교육 발전에 큰 업적을 이루신 서울대학교 민현식 교수님께서 맡아 주셨고, 주제 특강은 한국어의 의미와 변화에 관한 연구로 많은 성과를 이루고 계신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조현용 원장님께서 맡아 주셨습니다. 또한 초청 특강은 독일문학원의 안미란 선생님께서 맡아 주셨는데, 독일어 교사 양성 과정의 최근 사례를 통해 한국어언어문화 교육 및 한국어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탐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밖에도 각 분과별로 많은 선생님들께서 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셨습니다.

신록이 시작되는 5월에 풍성한 학문적 연찬의 자리로 준비한 춘계학술대회에 꼭 오셔서 학문적 성과도 얻으시고 자리도 빛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대회가 끝나면 총회가 개최됩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학회의 건승을 기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주말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회장 육효창 올림

축사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제 19차 전국 학술대회를 동국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된 걸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국대학교는 풍성한 자연의 조화를 품고 있는 남산 자락에서 스며나오는 향기롭고 화려한 봄기운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는 2001년 창립 이래 언어문화와 한국어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과 발표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그리고 한국어교육과 언어문화교육 등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해 왔습니다. 학회 창립 역사는 그리 길다고 할 수 없지만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임원들의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노력으로 명실공히 언어문화교육 관련 학회의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인 “한국어의 변화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접근”은 가장 시의적인 화두로서 한국언어문화교육의 발전을 만들어 갈 초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단계에 동국대학교도 이렇게 동참을 할 수 있어 영광스럽고 의의가 깊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1906년 개교 이래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노력하며 민족과 인류사회의 이상 실현에 기여할 지도적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또한 이 목적을 바탕으로 “지혜와 자비를 겸비한 도덕적 현대인”, “한국문화를 세계화하는 창조적 지식인”, “고도 산업기술사회에 부응하는 진취적 지도자”라고 하는 3가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학술대회 개최는 바로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는 활동이기에, 학회와 학교 및 사범대학의 공동 관심사가 잘 해결되고 또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자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디 이 학회 개최를 통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발전과, 현장에 적합한 실제적 능력이 강화된 미래교육,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세계화교육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열정을 바치신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육효창 회장님과 총무이사인 기준성 교수님, 그 외 모든 임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다시한번 동국대학교를 방문하신 모든 회원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5.05.09.

동국대학교 사범대학장 김혜숙

환영사

이번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19차 춘계학술대회를 “CML 창의인성 연구소”와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국대학교 “CML 창의인성 연구소”는 인성의 근본이 자기 긍정과 애타심에 있다고 보고 2013년 “개開꿈—Break Your Dream!”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활동을 전개하는 연구소입니다.

이번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주제인 “한국어의 변화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접근”은 우리 창의인성 연구소에서 지향하는 범세계화, 창의와 인성을 실현하는 목표에 잘 부합하는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학회 개최를 통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발전과, 현장에 적합한 실재적 능력이 강화된 창의인성 미래교육,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세계화교육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가교 역할을 해 주신 사범대학장 김혜숙 교수님과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육효창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다시 한 번 동국대학교를 방문하신 모든 회원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5.05.09.

동국대학교 CML(Creative Mindful Leadership) 창의인성 연구소
소장 김애주

*기조 강연

한국어의 변화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접근

민현식(서울대)

1. 언어변화란 관찰할 수 있는 것인가

올해는 광복 70돌의 해이다. 우리말로 지난 70년 사회변화에 맞물려 큰 변화를 하였다. 우리는 이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어교육에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본적 문제의식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사회언어학에서의 오랜 쟁점의 하나는 언어변화란 것이 실제로 언어변화가 발생할 때 관찰할 수 있느냐(Can linguistic change be observed while it is actually occurring?)의 문제다. 현대언어학은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Saussure(1959)나 Bloomfield(1933)에 따르면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은 언어변화 그 자체는 관찰될 수 없다고 한다. 언어학자들이 관찰하기를 희망한 것은 사실상 변화의 결과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든지 언어의 중요한 차이라고 하는 결과들은 어떤 언어구조의 차이만을 보여 줄 뿐이다. 어떤 경우든지 언어학자는 언어의 변이(variation)만을 관찰할 뿐이고 그런 변이란 허다하게 벌어지므로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다. 그런 변이형이란 것들도 두세 지역 방언이 중첩된 혼효형이거나 무원칙하거나 임의적인 자유변이형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언어학자들은 변이형에는 크게 이론적 중요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단지 최근의 연구들에서 언어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변이형들의 일부에서 가능한 열쇠를 일부 찾아볼 수 있었을 뿐이다(Wardhaugh 2002:189).

사회언어학의 언어변화 문제에서 또 다른 쟁점은 언어변화란 나쁜 것인가의 문제이다. 사람들은 언어변화가 나쁜 것으로 생각하여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17세기 말에 ‘걸리버 여행기’의 저자 조나단 스위프트(Jonathan Swift)는 만일 언어가 변한다면 사람들이 자기 작품을 더 이상 읽지 않으리라 생각하여 당대의 영문법가들이 영어 용법과 변화에 대해 처방적 규범문법의 규칙을 만들도록 하는 운동을 지원하였다. 당시의 문법가들은 언어 규칙의 근본을 기원 1세기의 고전 라틴어에 두었는데 라틴어가 변화하지 않아서 그것을 완벽한 언어로 보았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언어변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언어학자들은 언어변화를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으로 보며 언어변화란 언어의 사실(fact of language) 그 자체일 뿐이라고 본다(Anouschka Bergmann et. als. 2007:485).¹⁾

2. 규범언어와 현실언어, 규범언어학과 기술언어학

언어는 사회적 공동 규약이라 표준어 및 표준 발음 선정의 과정을 거쳐 표준 표기를 규정하게 된다. 그러나 표기와 규범은 불일치 현상이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배주채(2003:22)에서는 다음 문장의 현실 발음을 적어 보면 다음 []처럼 된다고 예시한 바 있다.

개를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개를 키우능 게 이러케 힘들 쥘 몰라따]
[개를 키우능 게 이력케 힘들 쥘 몰란따]

‘개’도 ㄱ-ㄱ 혼동으로 [게]로 발음하는 일이 많고 ‘키우는 게’도 과잉동화로 [키우능게]로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불일치의 확실한 이유는 형태론적 이유와 역사적 이유 때문이다.

‘없다-업다’를 구별 표기하고, ‘엎히고설키다’를 ‘엎히고섞히다, 얼키고설키다’로 적지 않음이나 ‘순가락-젓가락’을 구별함이 형태음소론적, 표의주의적 이유이다.

역사적 이유는 어원적, 관습적 이유로 표기를 적는 것인데 한자어 표기로 ‘사례, 희망’ 등은 이미 [사례, 희망]으로 발음되지만 역사적 표기를 전승 유지하고 있다. ‘빠꾸기, 피꼬리, 개구리, 제비’ 등도 어원이나 어근을 유지하려면 ‘빠꼭이, 피꼴이, 개굴이, 쥼이, 짚이’로 적어야 하지만 역사적 표기인 표음형 ‘빠꾸기, 피꼬리...’를 준수하고 있는 것이다. ‘우레’는 한자어원으로 오해해 ‘우뢰(雨雷)’로 써 오다가 1988년의 표준어 규정에서 역사적 어원[울-(震) + 게/에]을 회복한 좋은 사례이다. 영어에서는 ‘knight, damn, bomb’에서 보이는 묵음 표기에서도 역사적 표기를 볼 수 있다.

한편 언어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개신형에 대해서는 처방적 규범주의 태도와 설명적 기술주의적 태도의 두 관점이 있다. 처방적 규범주의 태도는 개신형을 오류라 하지만 설명적 기술주의 태도에서는 개신형을 오류로 보지 않고 긍정적 현상으로 열어놓고 관찰하며 추인하는 방향으로 간다.

Thornbury(1999:11-12)는 이를 문법 규칙(grammar rules)에 처방 규칙(prescriptive rule)과 기술 규칙(descriptive rule)의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전자는 처방언어학(prescriptive linguistics)의 태도이며 후자는 기술언어학(descriptive linguistics)의 태도에 근거한다.

처방 규칙은 “반드시 이렇게 말하거나 써야 한다”(should be said or written)는 식의 규칙으로 가령 영어에서 ‘A가 B와 다르다’는 표현은 ‘A different from B’만이 맞으며 ‘different to, different than’을 써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다. 반대로 기술 규칙은 처방 규칙에서 오류로 보는 것을 인정하는 방식의 규칙으로 “이러이러하게 쓰는 일반적 경향이 있다”라는 식으로 일반화(generalization) 기술을 하는데 이 역시 규범 문법의 규칙에 속한다고 본다.

우리의 경우 한글 맞춤법(1988)과 표준어 규정(1988)을 제정할 때 복수 규범주의가 도입된 것은

1) 영어의 다음 두 표현에서 처방주의자(규범주의자)들은 (ㄱ)만이 바르다고 하며 (ㄴ)은 잘못이라고 하지만 기술주의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Anouschka Bergmann et. als. 2007:485).

(ㄱ) A chess set comprises thirty-two pieces.

(ㄴ) A chess set is comprised of thirty-two pieces.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이다. 다음 예처럼 과거에는 ‘만큼’보다 ‘만’이 옳고, ‘보다’는 일본어 비교의 격 조사 ‘より’(보다)의 번역투라 쓰지 말고 ‘더’를 써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되었으나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는 그런 개별적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만큼, 만’을 모두 인정하고 ‘보다’도 현실 언어로 허용하게 되었다(줄고 2007).²⁾

(1) ㄱ. 교육{만큼, 만}은 내가 책임지겠으니 당신은 직장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ㄴ. 앞으로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교육 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법교육을 처방주의 관점의 규범 규칙만 가르치는 것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며 언중 다수가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면 그 경향을 추인한 기술 규칙을 설정해 복수 규범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물론 관용과 융통성의 차원에서 복수 규범을 허용하다 보면 단수 규범 준수 의식이 약화될 수 있어 복수 규범의 허용은 엄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다음은 어미 ‘-길래/-기에’의 사용과 어미 ‘-고/-구’의 사례인데 ‘-길래/-기에’는 2011년 추가된 복수 표준어 39개 어형에 포함되었으나 ‘-구’는 아직 오용으로 규제된다.³⁾

(2) KLEAR Advanced Intermediate 2. 제12과 건강관리: 대화문(51쪽)

수연: 응, 머리가 하도 아프고 피곤하길래 병원에 갔더니 과로에다가 영양실조래.

진희: 뭐? 영양실조라구? 정말이니?

.....

수연: 맞아. 아침 거르고 점심도 간단하게 매우잖아. 그러면 저녁은 또 많이 먹게 되

더라. 의사 선생님께서 아침은 조금이라도 꼭 먹으라고 그러시더라구.

이런 문제를 안고 오늘도 한국어는 변화하고 있다. 광복 70년의 세월 속에 한국어도 많이 변하였다. 발음이 변하고 어휘가 변하고 문장, 담화 방식(문체, 장르)도 다양하게 변하고 소통의 도구도 인터넷, SNS 등으로 다양해졌다.

3. 한국어 공동체의 역사적 변화

한국어 공동체는 삼국시대 부여-한 공동체에서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신라 때 동남방언 중심의 한

2)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만큼 □ □ 『체언이나 조사의 바로 뒤에 붙어』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ㄴ만치□. ㄹ집을 대궐만큼 크게 짓다/명주는 무명만큼 질기지 못하다./나도 당신만큼은 할 수 있다./부모님에게만큼은 잘해 드리고 싶었는데!

보다2 ㉠ 어떤 수준에 비하여 한층 더. ㄹ보다 높게/보다 빠르게 뛰다/그것은 서로 보다 나아지려는 연인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보살핌이었다. <최인훈, 광장>

3) 복수 표준어 선정에 대해서는 최혜원(2011) 참고.

민족어의 통일이 이루어져 1차 대변화를 겪는다. 그 후 경덕왕 때에 중국식 한자어 관직명, 지명 변화 등이 나타난다. 그 후 고려가 시작되어 언어 중심이 중부 개경 지방으로 이동하는 것이 2차 변혁이었다. 2차 변혁 이후에도 불교, 유교의 영향이 언어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조선왕조의 성립과 성리학의 수용은 한국어에 3차 변혁을 이룬다. 특히 세종은 한글 창제를 하고 ‘훈민정음’ 어제서문에서 자주, 애민, 실용의 언어주권을 선언하고 언어정비와 언해본의 출판을 통해 한글문화의 씨앗을 뿌렸다. 경상도민의 함경도 이주와 같은 부분적인 방언의 이동이 있었고 성리학의 영향으로 한자어가 지속적으로 증대한다.

4차 변혁은 조선 후기 즉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17-19세기에 걸쳐 나타난다. 서구 근대 문물이 중국어를 통해 유입되고 가톨릭, 개신교의 전래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진다. 이 시기는 연해주 이주(1863), 항일의병 이주(1895년 을미사변과 1905년 을사늑약 계기), 하와이 이주(1903)처럼 한국인들의 해외 이주 시대가 열린다.

조선말에는 청일전쟁과 갑오개혁(1894) 이래로 통감부, 총독부 시기라는 치욕의 일제식민지를 거치면서 일본계 한자어의 대거 유입으로 5차 변혁을 이룬다. 이 시기는 일본계 언어 표현의 영향이 가속화하고 아직까지도 한국어에 깊은 상처와 흔적을 남기고 있다.

6차 변혁은 미군정, 남북 분단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 성립, 6.25,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시대를 거쳐 온 지난 70년으로 이는 통일신라 이래 최대 변혁기라 할 수 있으니 대변혁의 출발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다. 남북간에는 이념 체제가 다르고 정치 경제 문화가 달라 그에 따른 언어변화는 필연적으로 나타났다.

광복 70년 동안 한국어가 변했다고 해도 기본 요소인 기본 체언과 곡용 조사, 기본 용언과 활용 어미, 기본 부사에서는 곡용 및 활용의 근간 체계를 지켜오고 있다. 남북간에도 이질화 요소보다는 동질화 요소가 훨씬 더 크기에 남북의 언어통합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난 70년 전의 언어자료는 신문, 잡지, 소설을 보면 더욱 친근감이 들 것인데 여기서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 한 가지(제헌국회 속기록 제1호의 개회사)를 부록에 달아 광복 및 건국의 감격과 함께 남북통일의 염원을 되새겨보도록 한다.

4. 현대 한국어의 사회적 변화 요인과 한국어의 위기

4.1. 도시화와 산업구조의 변화와 방언 소멸의 위기

한국어의 변화는 사회경제의 변화와 밀접하다. 근대화가 도시화로 나타나면서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1970년대 이래로 중화학산업 중심의 산업화로 변하고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이 변하면서 언어문화도 농어촌 촌락 중심의 1차 산업형 언어에서 상공업 중심의 2차 산업형 언어와 서비스 산업의 도시 중심 3차 산업형 언어로 중심이 변하였다. 그 결과 경제 금융 상공업 중심의 전문어와 서비스 오락형 생활어가 급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통적 농어촌 중심의 방언문화는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다. 이제는 농촌 청소년

의 언어는 조부세대의 언어와는 확연히 달라졌다. 가령 영동방언에서 ‘썰매’의 방언형인 ‘빙거(氷車), 안질뱅이, 시게또’ 같은 어형을 현지의 청소년 세대에서는 듣기 어려워졌다. 전국적으로 방언 조사의 결과를 보면 노년층은 아는 전통 문물 어휘를 청소년층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2. 핵가족 사회와 언어전승의 위기

한 나라의 언어문화를 유지하려면 2.1명의 출산율이 유지되어야 한데 현재 서구를 비롯해 한국은 저출산율이 문명과 언어 보전이 제대로 될지 미지수이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고 노령화, 고령화 속도가 최고 수준이라 문제가 심각하다. 한번 쇠퇴한 문화를 되살리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3, 4대 대가족사회의 동거가 사라지고 2대만이 동거하는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조부모 세대의 언어 전승이 불가능해지고 대부분 2대의 언어 곧 부모 세대의 언어만 학습 전승되고 있다. 최근에는 핵가족화와 동시에 남성 가장이 직장생활에 전념하면서 아버지의 얼굴도 보기 어렵고 아버지의 경우 자녀와의 대화도 적어 실질적 언어 영향력이 낮다. 어머니들도 사회 진출이 일반화하면서 여성어를 기반으로 하는 모어 전승도 쉽지 않아 부모의 언어가 자녀들에게 충실히 전승된다고 하기 어렵다. 자녀가 부모와 식사를 같이하는 것이 희소해져가는 것과도 통한다. 밥상머리 대화 곧 식탁 대화의 상실은 아동언어 발달에도 부정적이고 언어예절의 전승도 어렵게 한다(SBS 스페셜 제작팀 2012).⁴⁾ 대신 나홀로 아동이 많아지면서 텔레비전과 게임의 언어와 같은 영상미디어의 영향을 받게 되어 게임중독, 텔레비전 중독을 낳으니 그 위험도 지대하다(권장현 2010).⁵⁾

사회적으로 막말이 난무하고 무례 사회화하는 현상의 원인도 가정언어를 통해 언어예절이 전승되지 못하여 붕괴된 탓으로 보인다. 물론 조모나 어린이집 교사나 보모가 대부분 여성이라 여성어 기반의 모어는 전승된다고 하겠지만 친모의 언어적 영향이 위축되는 현상이 점차 일반화하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형제자매가 많은 집안일수록 형제자매간 대화훈련으로 사회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인성훈련에도 기여하는데 이제는 외동이의 증가로 대화할 형제자매가 없어졌다. 형제자매간 대화 문화의 원천적 소멸로 또래와의 대화 경험이 취약해져 대인 대화의 미숙함으로 대인 기피나 갈등적 대화로 끝나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어휘의 특징인 장단음이 소실된 것도 3대 조부모 언어와 2대 부모 언어의 전승이 위축 소멸한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 장단, 억양이 퇴화하면서 청소년 특유의 발음(어두 강세, 어말 올림조, 된소리화, 여성어투의 확산 등)이 일반화되었다. 특히 가족 대화가 위축되면서 청소년

4) SBS스페셜팀에서는 밥상머리 대화가 침대 말에서 어머니가 동화 읽어주기보다 아동의 언어발달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하버드 대학의 연구를 소개 방영하고 책도 냈다. 제작팀은 밥상머리 대화가 아동 지능발달의 보고(寶庫)라면서 미래 경쟁력과 사춘기 뇌 발달이 밥상머리 가족식사에 달려 있다면서 하루 20분 가족 식사가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고 주장한다.

5) 권장현(2010)은 폭력 살상투성이의 게임중독, 영상 중독이 사고력의 핵심인 전두엽 기능을 죽게 하는 게임버를 만든다고 한다. 부모가 해야 할 최고의 선물은 조기영어교육, 선행교육을 위한 학원 등록이 아니라 자녀가 모어 사용능력을 충분히 갖추도록 경청과 대화로 사고력, 표현력을 키워 주고, 자신감을 키우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들이 자기들만의 또래언어문화 형성에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면서 외계어라고 하는 청소년 특유의 통신언어문화가 형성되었다.

4.3. 대중문화의 확산과 언어 혼돈의 위기

현대 사회는 세계화, 다양화를 통해 급변하고 있다. 현대문화는 세속화, 개인화, 다원화, 육체화, 물질화, 대중화, 오락화의 모습을 보이고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 대중의 문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현대 문화가 물질문화를 추구하면서 세속 자본주의가 상업 언론과 결합하여 대중오락화의 길을 달려간다(강영안 역 1994).

전통적으로 법, 종교, 철학, 문학, 예술을 통해 참된 삶의 가치를 추구하던 고급문화는 ‘재밋거리’(entertainment)를 추구하는 하급문화 또는 대중문화로 대체되고 있다. 따라서 유행어, 통신어, 신어의 언어문화도 급속도로 이런 방향으로 생산되고 확산된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이런 대중용 드라마, 가요, 오락 프로그램으로 넘치며 특히 신어들에서 외래어 범람, 어휘 축약, 어종 혼합과 같은 언어 혼돈이 극심하다.

출퇴근^쇼핑족(出退勤 shopping族): 한^(영+한) 『사회』 출퇴근을 하면서 쇼핑을 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광삭(光削): 한 [광삭] 「명」 빛의 속도와 같이 매우 빠르게 삭제함. =빚삭(빚削).

문막튀(門막튀) 한+고+고 「명」 문을 열지 못하게 막아 놓고 도망치는 일. 또는 그런 사람.

앵그리-하이틴(angry highteen) 영+영 「명」 당면한 사회 문제에 분노하는 청소년.

언어 혼돈의 극단이 유행가의 한영(韓英) 혼용 현상이다. “Let's go 뭘 걱정하는데 넌 됐고 ... 넌 모른 척 눈을 감는 You Bad Bad, Bad boy You so bad...”(Mr. Mr, 소녀시대), “너는 왜 you're gone away”(Come back home, 2NE1) 등 한영 혼용체 노래는 젊은이 노래문화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이런 노래의 절정은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음악 한류(K-Pop)의 돌풍을 일으켜 긍정적 평가도 받는다. 그러나 한영체 노래는 “누가 봐도 내가 좀 죽여주잖아”, “정신줄 놓고 내가 다 미쳐” 같은 비속어 표현도 많고, “더 sexy하게 더 tasty하게 like it like it”, “럭셔리하게 좀 더 핫하게 변신 말고 진한 눈길 받아볼래”처럼 외국어 남용도 흔하며, “니가 zoa, 너밖에 Mola”처럼 국어의 로마자화 표기도 보여 국어 파괴의 종합전시장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한영체 노래는 영어 감탄사를 추임새로 써서 “Hey listen Mr boy”의 ‘Hey’나 ‘Oh’의 빈도가 높다. 일상에서는 영어 ‘와우’나 ‘오 마이 갓’도 흔하다. 한영체 노래에는 ‘baby, babe, girl, boy, honey’ 같은 호칭어도 많다. 영어에서 ‘baby’는 모르는 여자에게 남자가 쓰면 모욕감을 주는 비속어인데 우리 노래에는 거부감 없이 통용된다. 한영체 노래는 곡을 먼저 만들고 가사를 붙이다 보니 운율을 맞추기가 어려워 짧은 멜로디에 간결한 가사를 넣은 후렴구를 반복하는 후크송(hook song)이 흔하다. ‘후크송’은 대중들의 귀에 갈고리 걸 듯 후렴구를 반복해 기억시키는 노래다. 원더걸스의 ‘노바디’는 ‘노바디’가 수십 번 나오며, 소녀시대의 ‘지’에도 ‘Gee’와 ‘baby’가 끝없이 반복된다.

한영체 노래는 “오직 나는 너를 위해”처럼 우리말로 표현하면 직설적이므로 “I want nobody nobody but you”라고 해 직설적 느낌을 줄이고 영어 강조의 효과를 높인다. 초기에는 영어 단어만 교대로 쓰이더니 요즘은 “너 없인 이제 hopeless world”, “자 here we go 난 내 마력에 빠진 걸”처럼 영한 어구 교대 표현이 흔하고 문장 차원의 반복도 이루어져 “I’m so hot 난 너무 예뻐요 ... I’m so cool 난 너무 멋져”처럼 쓰여 우리말은 영어와 함께 쓰이지 못하면 존재감이 없어진 지 오래다. 또한 신세대들의 욕구를 위해 남녀의 사랑을 선정적으로 표현하려고 한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직설적이라 심의과정에서 탈락되므로 비유적 영어 속어 표현을 써서 심의를 통과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⁶⁾

한영체 가요의 유행은 과거 팝송 세대가 영어를 배우고자 흥얼거리던 시대와 달리 조기영어 교육 세대가 자라나 영어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영어를 세련된 언어로 느끼면서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 문화의 상징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시조, 동요, 가곡을 잃어버린 세대가 영어로 자기를 표현하면서 모어 대신 조기영어를 가르친 결과가 어떤지 기성세대에게 보여 주고 있다. 국어과와 음악과 교육이 입시교육에 밀려 부실해지면서 더욱 그렇다.

노래는 시대의 기쁨과 아픔과 희망을 노래하면서 모어를 더욱 아름답게 빛낸다. 그러나 요즘의 한영체 노랫말은 중병에 든 우리말의 신음소리로 들린다. 한영체 노래는 한두 개 영어 단어를 넘어 이제 영어 문장 차원으로 일반화한 지 오래다. 이런 중독적 한영체 노래가 우리말을 파괴하고 우리말 표현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 우리말로 건전한 비판과 창조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청소년 노래 문화를 위해 학교 차원에서 국어과와 음악과의 협력이 절실하다. 아울러 관민 협력으로 추진중인 <언어문화개선 ‘안녕 우리말’ 운동>도 노랫말 개선과 같은 세부 영역별로 추진해 사회 전체의 국어 대각성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4.4. 세대 차이의 심화와 세대간 언어불통의 위기

세대 차이를 30년으로 흔히 이야기하지만 최근에는 5-10년마다 사회 변화가 극심해 5-10년 단위로 세대차를 느낄 정도로 세대언어의 변화와 불통이 심하다. 이런 시대 변화의 원인은 대체로 정치 경제문화 의식의 과잉과 격변 탓인데 역대 정부별로 시대별 핵심어를 정치문화를 중심으로 추출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나올 것이다.⁷⁾

(0) 미군정: 해방둥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민족, 독립, 자유, 38따라지(실향민), 주비(籌備)위원회(해방 2개월 만에 창단된 정치 사회단체 무려 250여개),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빨갱이, 빨치산, 양공주, 양색시, 유엔마담, “미국놈 믿지 말고 소련놈에 속지 말라 일본놈 일어나니 조선사람 조심하세”

(1) 제1 공화국: 이승만 정부. 1950년 6.25 세대(사변둥이), 농지개혁, 냉전, 전쟁, 휴전, 북진통일, 댄스홀, 자유부인, 춤바람, 부정부패, 뺑, 국물, 사바사바, 와이로, 민주당의 “못살겠다 갈아보자”와 자

6) 이상과 같은 한영 혼용체 대중가요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서는 한성일(2010), 강연임(2011) 참고.

7) 광복 후 시대 유행어에 대해서는 강신향(1991) 참고.

유당의 "갈아 봤자 더 못산다.", 신익희 급서(急逝)와 유행가 '비 내리는 호남선', 인의 장막과 '지당 하십니다' 지당파, 귀하신 몸(가짜 이강석 사건)

(2) 제2 공화국: 윤보선 정부. 1960년 4.19 세대, 민주화, 데모, 시위

(3) 제3 공화국: 박정희 정부. 1961년 5.16 세대, 민족중흥, 조국근대화, 민생고 해결, 혁명공약, 안보, 국방,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운다, (정신적)自助-(경제적)自立-(국방과 정치의)自主, 재건국민운동, 재건복, 재건체조, 재건데이트, 잘 살아보세, 자의반타의반, 3선 개헌, 6.3 세대(한일회담 반대세대), 파독광부와 간호원, 월남파병, 월남전 세대, 예비고사 세대(1968.12.16. - 1980.11.20.),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1969), 치맛바람, 무우즙파동, 1.21 사태, 공비, 예비군, 향토장학금, 미팅, 우골탑

(4) 제4 공화국: 1972년 10.17 10월 유신, 유신 세대, 7.4 남북공동성명,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독재, 40대 기수론, 장기집권, 반정부투쟁, 언론자유, 새마을운동(근면, 자조, 협동), 고속도로, 중화학 공업, 그린벨트, 1974년 고교평준화 정책(1974 서울, 부산부터 점진적 시행), 의료보험(1977), 석유과 동(1973, 1978), 중동건설, 데모 진압, 전경, 장발족 단속, 통기타, 카더라, 유비통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아더메치유(아니꼽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고, 유치하다)

(5) 제5 공화국: 최규하 정부, 전두환 정부. 1980년 5.18 세대, 학력고사 세대(1981.11.24.-1992.12.22.)민주화, 광주민주화운동, 정의사회 구현, 신군부, 군사독재, 유혈사태, 위장취업, 주사파, NL파, PD파 운동권, 386세대,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사오정 시리즈, 유전무죄 무전유죄, 6.29 시민혁명, 넥타이 부대, 프로야구

(6) 제6 공화국 1기: 노태우 정부. 1988년 개헌, 북방 외교, 동구권 붕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정치공학, 여소야대(與小野大), 3당 합당, 보수연합

(7) 제6 공화국 2기: 1993년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 수능세대(1993- 현재), 세계화/국제화 세대, 컴퓨터, 인터넷, 홈페이지, 컴맹, 금융실명제, 지방자치단체선거, 왕따, 1998 IMF 외환위기, 금모으기 운동, 국가부도, 보수 분열, 북핵 위기, 토사구팽, "우째 이런 일이..."

(8) 제6 공화국 3기: 1998년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햇볕정책, 퍼주기, 6.15 선언, 연평해전, NLL, 외환위기, 명퇴, 조퇴, 정리해고, 빅딜, 퇴출, 고통분담, 가격파괴, 엽기, 휴대폰

(9) 제6 공화국 4기: 2003년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종합부동산세, 대통령 탄핵, 수도 이전, 북한 핵무장, 2007년 10.4 선언, 00스럽다, 유비쿼터스

(10) 제6 공화국 5기: 2008년 이명박 정부. 4대강, 광우병, 촛불시위, 행복도시,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중북세력, 금융위기, 선행학습, 창체(창의체험)활동, 국사교과서 파동, 스마트폰

역대 인터넷 유행어도 'ㅋㅋㅋ, 아헿헿, 엽기, 대박, 작업, 헐, 얼짱, 오타쿠, 찢어, 똥미, 레알, 갑(甲), 짜웅'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세대 차이와 불통이 심화될수록 대화와 소통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뒷사람일수록 귀를 열고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 현장을 아는 아랫사람들이 활발히 상호토론을 하며 나온 의견들을 건의해 작업 능률과 조직 개선이 이루어져 정부와 회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창의적 하의상달 문화를 활발히 가꾸어야 한다.

4.5. 남북 갈등과 언어 이질화의 위기

분단 70년의 결과 남북 언어는 이질화된 요소를 안고 있다. 따라서 대결 구도에서 유래된 이질화 요소를 풀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아직은 남북 언어가 동질적 요소가 크지만 의식의 심연에 깔려 있는 남북 대립과 차별의식은 남북 통합에 걸림돌이다.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은 장차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사전 훈련이기에 탈북동포 언어적응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 국어교육을 중심으로 북한 이해 교육, 탈북동포 이해하고 품어주기 교육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

탈북동포들은 체제가 다른 한국 사회에 와서 어휘, 발음, 화행의 차이로⁸⁾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으므로 일종의 제2 방언을 습득하는 것과 같다(양수경 2012: 13-19). 탈북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와서 겪는 언어 적응 문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심리적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이다. 통상 한국에 와서 2-3년 지나면 적응하는데 서로 이해하고 돕고 하나가 되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탈북동포 교육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의 탈북민 이해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에서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직장단체별로 탈북동포 초청 어울림 교육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의식개선이 더 선행되어야 한다.

4.6. 한국어의 세계화와 외국어 범람의 위기

한국어 공동체가 세계화를 맞아 나타난 변화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갈래로 보아야 한다.

(1) 외래문화와 외국어의 범람

1990년대 이후 한국어의 가장 큰 변화는 세계화 추세와 외국과의 교류 속에서 외국어의 유입이 급증한 것을 들 수 있다. 전문어가 지식 유입으로 들어옴을 막을 수 없기에 번역 순화의 노력이 공식적으로 요구되어 인명과 지명은 국립국어원과 신문편집인협회가 공동운영하는 정부언론외래어공동심의회를 통해 이루어져 언론을 중심으로 전파 공개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별 전문어들은 정부 부처별로 분야별 순화어 작업을 벌여 국어심의회를 거쳐 고시하고 있다. 또한 신속히 통용되고 있는 외국어를 매월 5개 정도씩 정해 국립국어원의 말다듬기위원회에서 순화어를 정해 알리고 있다. 다음은 최근까지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말다듬기 사례이다.

순화 대상어	순화어
워킹 푸어(working poor)	근로빈곤층
하우스 푸어(house poor)	내집빈곤층
로드 매니저(road manager)	수행매니저
싱어송 라이터(singer-songwriter)	자작가수
카메오(cameo)	깜짝출연(자)

8) 어휘 차이는 남한사회만의 문물어(퀵서비스, 청와대, 치맛바람, 인터넷뱅킹 등 외래어 과다), 남북 이형동의어(곽밥-도시락; 빨래집-세탁소; 랭동기-냉장고), 남북 동형이의어(바쁘다, 늙은이, 일없다, 코트)를 들 수 있다. 발음 차이는 ‘오-어; 으-우’ 분별 문제, 북한식 억양을 들 수 있고, 화행의 차이는 거절, 칭찬, 사과 화행에 미숙한 것을 들 수 있다(양수경 2012:22-25).

북 크로싱(book crossing)	책돌려보기
북텔러(book teller)	책낭독자
북마스터(book master)	책길잡이
오디오 북(audio book)	듣는책
지리(ちり)	맑은탕
쓰키다시(つきだし)	겉들이찬
후리카케(ふりかけ)	맛가루
빅데이터(big data)	거대자료
화이트 해커(white hacker)	착한 해커
스타트업(startup)	새싹기업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대중투자
블랙아웃(blackout)	대정전
그린루프(green roof)	옥상정원
제로 에너지 하우스(zero energy house)	에너지자급주택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	초단열주택
시즌 오프(season off)	계절마감 또는 계절할인
원 플러스 원(one plus one)	(하나에) 하나 더
핫 플레이스(hot place)	뜨는곳 또는 인기명소
잇 아이템(it item)	매력상품
베이비 플래너(baby planner)	육아설계사
아웃도어 인스트럭터(outdoor instructor)	야외활동지도자
네일 아티스트(nail artist)	손톱미용사
타투이스트(tattooist)	문신사
피싱(phishing)	전자금융사기
파밍(pharming)	사이트금융사기
스미싱(smishing)	문자결제사기
워터마크(watermark)	식별무늬

이러한 유입 과정에서 ‘스마트하다, 핫하다, 디테일하다, 샤프하다, R&D, TF... 와우, 오 마이 갓’ 등의 외국어가 전문어 수준도 아닌데 일상어로 통용되어 문제이다. ‘세계화, 국제화’는 ‘글로벌’로, ‘여행’은 ‘투어’로, ‘신장개업’은 ‘오픈’으로, ‘치유, 치료’는 ‘힐링’으로, ‘섬세하다, 정교하다’는 ‘디테일하다’로 바뀐 지 오래다. 어느새 우리 스스로 영어를 일류어로 높이고, 한국어를 이류어로 비하시키고 있어 국어대각성운동이 필요하다.

(2) 이주민의 증가와 통합형 이민 정책 필요

2000년대부터는 외국인의 이주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오늘날 외국인 200만 시대를 바라보게 되어 점진적 다문화사회로 달려가고 있다. 외국인 인구가 총인구의 10%가 되면 다문화사회라고 하는데 현재 한국은 5천만 인구에 180만 규모로 3.6% 수준에 불과하므로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일본의 외국인 비율(1.6%)보다는 2배 이상 높고 앞으로 인구정책에 따라 다문화 사회화의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⁹⁾

9) 우리보다 앞서 외국인 유입을 겪은 일본의 현재 외국인 인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제 한국어 학습은 외국인 성인들(이주여성, 근로자, 유학생 등)이나 취학연령 외국인 자녀들의 국내 학교 취학 시 중요사항이 되어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두 전공간의 협력도 활발히 요구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분리 고립되지 않고 한국어 습득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들의 모국어 보전도 자연스레 이루도록 병행 지원하는 통합형 이주민 정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인구 10%도 안 되는 외국인 인구라 아직 다문화사회로 볼 수 없고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이라는 결혼이주여성 가정도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여성인 경우로 두 문화에 불과한데 다문화가정으로 명명하고 다문화정책으로 시행하다 보니 어느새 현장에서는 ‘다문화’라는 말이 차별 용어로 전락하여 앞으로는 이 용어 사용을 금하고 신중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다문화정책은 유럽의 다문화정책이 이슬람 문제에서 보듯이 실패한 정책임을 깨닫고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지나치게 미국이나 캐나다의 다문화이론의 영향을 쉽게 받은 것으로 서구의 다문화정책을 무조건 추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줄고 2014).

(3) 해외동포 한국어의 변화

최근 국립국어원에서 중국, 러시아, 미국 등지의 동포사회의 언어변화를 조사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동포언어는 현지 언어인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등의 간섭으로 새로운 혼합어로 변모해 가고 있고 특히 재미동포들의 언어는 한국에 역수입되어 유행하는 현상도 보인다.

국립국어원(2012)의 재중동포 언어 사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중동포의 조선어에는 직접 또는 간접 한어(漢語)의 차용이 나타난다. 한어를 조선 한자음으로 직접 차용하는 경우인 ‘생활수평(生活水平, 생활수준), 공인(工人, 노동자), 공자(工資, 임금), 주숙비(住宿費, 숙박료), 관공실(辦公室, 사무실), 후조/호조(護照, 여권), 좌우(左右, 전후)’라든가, 한어 발음 그대로 간접 차용하는 ‘뎨쓰(電視, TV), 뎨노(電腦, 컴퓨터), 쌍발(上班, 출근), 짜발(下班, 퇴근)’ 등을 들 수 있다. 경운기는 러시아계인 ‘뜨락또르’, 한어계인 ‘스프트라지’가 같이 쓰이고, 냉장고는 ‘뽕상(冰箱), 덴뽕상(電冰箱), 냉장고’가 같이 쓰인다(국립국어원 2012).

재중동포는 모국어를 조선어로 생각하는 이가 80%, 중국어로 생각하는 이가 10.3% 수준이라 아직 다수는 조선어를 모국어로 생각한다. 일상 제1언어로 조선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65.5%, 중국어를 쓰는 비율이 30.7%로 나온다. 가정언어는 조선어가 75.8%, 중국어가 20.3%로 쓰인다. 중국어가 조선족 가정에서의 사용이 20%를 넘어서서 앞으로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조선어 소멸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어 조선어 전승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배우자의 한족 비율이 3.7%로 점증하고 있고 한족 학교에 다니는 조선족이 증가하고 있어 조선어 보전에 어려움이 많다(국립국어원 2012).

가족간에도 윗세대에게는 조선어를 쓰고 아랫세대에게는 그들이 잘하는 중국어로 쓰는 경향이 커져서 중국어 사용은 점증할 상황이다. 지역적으로 요령성, 흑룡강성에서는 가족간에도 조선어 사용이 적어진다. 한국 TV 시청은 동포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데 3/4은 시청하는 편이며 그중에 1-2시간 시청자가 48.1%에 달하고 요령성 동포들의 시청률이 높다. 특히 은퇴 후 여유가 있는 노년층일수록

2013년 10월 1일 일본 전체 인구 및 외국인 수(일본 총무성 통계국 자료)

총인구(127,298천명) = 일본인수(125,704천명) + 외국인수(1,594천명, 1.25%)

2012년 일본의 외국인 등록자 수(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 통계자료)

총 2,038,159명(1.6%). 2011년 대비 0.4% 감소

시청률은 높다.

재미동포들의 경우에도 모국어에 대한 언어 태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국립국어원 2014).

(1) 언어의식과 태도: 1세대와 1.5세대의 경우에는 98%의 압도적 비율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인식하고 있으나 2세대는 62% 정도로 떨어진다. 2세대들은 한국어 능력보다 영어 능력이 우수함에도 한국어를 모국어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반 이상이다.

(2) 더 잘하는 언어: 연령이 높아질수록 한국어를 더 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10대와 20대에서는 영어를 잘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 20대의 20%, 10대의 2%만이 한국어를 더 잘하는 경우였다.

(3) 평소 더 많이 사용하는 언어: 이주 세대별로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데 1세대의 경우에는 80% 정도가 평소에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1.5세대에서 한국어 사용은 40% 정도로 줄고 영어 사용이 50% 정도로 늘어나며, 2세대로 가면 95%가 평소에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4) 가족 간 대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 모든 세대에서 한국어 사용 비중이 영어 사용 비중보다 높았다. 그런데 1.5세대는 1세대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2세대의 경우 영어 사용 비중이 33%로 1세대나 1.5세대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이 결과를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응답 결과와 비교해 보면, 1.5세대는 평소에 쓰는 언어는 2세대 쪽에 가까운 반면 가족 간 사용하는 언어에 있어서는 1세대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2세대의 경우에도 평소에는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한 응답이 5% 정도였지만 가족 간에는 63%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재미 동포들은 평소에는 52% 정도로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가족 간에는 80% 이상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5)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영어를 잘해야 하는 언어로 꼽았다. 10대의 경우만 반대로 한국어를 잘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한국어보다 영어 사용 및 능력이 높은 것을 상기할 때 10대들이 상대적으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미동포들의 한국어 변이형은 다음과 같은 사례가 보고되었다.

(1) 비개신형: 국민학교, 감투, 거진, 거마비, 국민, 식모, 민짜, 변소, 비행장(←공항), 복덕방, 순경, 식구, 군대 다녀오다, 에리, 쓰레빠, 테레비

(2) 혼종어: 겹얼롱하다(어울리다), 기브업하다(포기하다), 노뽀머월(11월), 익스체인지하다(바꾸다), 컴플레인하다, 리타이어하다, 루즈하다(느슨하다/손해보다), 루드하다(무례하다), 루턴하다(반복되다), 인벌브하다, 조인하다, 카피하다, 오픈하다, 차지하다(청구하다), 서포트하다, 티피컬하다, 터치하다, 토스하다, 메이비(maybe)하다, 업(up)되다, 택케얼(take care)하다

(3) 외국어

① 원형 외국어: 잡(job), 키친(kitchen), 로컬(local), 가드너(gardener), 갬블(gamble), 어포인먼트(appointment), 걸 프렌드(girl friend), 어프라이(apply), 게스 스테이션(gas station), 어프레절

(appraisal), 그라지 (garage), 언더그래주에잇(undergraduate), 그라지 세일(garage sale), 언더스탠(understand), 그로서리(grocery), 글로벌(global), 기프트 스토어(gift store), 메인テナンス(maintenance), 베리 디스턴트 렐러티브(very distant relatives), 서베이(survey)

② 변형 외국어: 먼슬리 (monthly payment, 월 사용료), 다운 페이 (down payment, 선지급), 체크 (checking, 직불), 사이드(side dishes, 반찬), 새러다 믹스(salade mix, 섞은 채소), 셀티피(certificate, 증명서), 쉐비스(worship service, 예배), 오픈 아워(opening hour, 개장 시간), 원베드(one bedroom, 침실 1개인 집), 킨더(kindergarten, 유치원), 트래픽 (traffic jam, 교통 체증), 페이(payment, 임금)

(4) 중간언어

① 부정의문 대답: 아니요, 안 나가 보셨어요 (네, 안 나가 보셨어요)

② 영한 번역식: 영어가 편한한 거예요 (영어가 편한 거예요), 모험적인 스포츠(위험한 스포츠), 30학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30학점을 따야 돼요)

③ 용언 활용: 같으대요 (같대요), 늘으신 것(느신 것), 신기하는데 (신기한데), 오래지 않는 (오래지않은), 와이프가 그런데(와이프가 그러는데), 답답하는(답답한), 서투르는 (서투른), 비슷하는데(비슷한데), 안 써고(안 쓰고), 왠 때는(올 때는)

④ 체언 곡용: 봄하고 가을하고를 (봄하고 가을을), 대부분으로는(대부분은), 저가(제가), 한 사람에 서(한 사람에), 서울만 있어서(서울에만 있어서)

⑤ 필수성분 누락: 도움 됐을 같애요(도움 됐을 것 같아요), 애 놀고(애랑 놀고), 애들하고 대화랑(애들하고 하는 대화랑), 좋았던 같애요(좋았던 것 같아요), 힘들었 거 같은데(힘들었던 거 같은데), 종류별도 많기 때문에(종류별로도 많기 때문에)

이상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재외 한국어의 변화는 역설적으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서울 중심의 표준말을 배워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 중심의 표준어 확립이 더욱 중요함을 보여 준다.

5. 한국어의 변화

일반적으로 언어변화는 음운의 변화, 형태의 변화, 문장의 변화, 의미의 변화, 담화(방식, 문체)의 변화로 나누므로 현대 한국어의 변화도 이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5.1. 발음의 변화

모음의 변화는 잘 알려진 대로 ‘ㅏ-ㅓ, ㅗ-ㅓ-ㅓ’의 혼동이 극심하며 다음 유형들도 혼동과 오용 표기가 많다(졸저 1999).

(1) ㄴ - ㄷ 혼동: 내 것 - 네 것. 결재 - 결제. 체제 - 체재

(2) ㄴ - ㄹ - ㄷ 혼동: 외국 - 왜국 - 웬일

(3) ㅏ - ㅑ 혼동

ㅏ: 가낱프다, 괴팍(怪悞)하다

ㅑ: 가팍하다, 오팍(傲悞)하다, 강팍(剛悞)하다¹⁰⁾, 뺨

ㅏ/ㅑ: 갈강갈강하다(=가랑가랑하다)≠갈강갈강하다(=가랑가랑하다), 까르르/까르르

(4) ㄴ - ㄷ 혼동

ㄴ: 건더기, 구더기, 엉덩이(cf. 궁둥이), 덤터기, 웅덩이

ㄷ: 껌데기, 굼벵이, 게염스럽다

ㄴ/ㄷ: 북더기=북데기, 거슴츠레=게슴츠레, 꺼림하다=깨름하다, 너(말)-넉(되)-네(명)

(5) ㅡ - ㅣ 혼동

ㅡ: 가르마, 거슴츠레/게슴츠레, 팬스레(팬시리*), 으스대다(으시대다*)¹¹⁾, 매스껌다, 들르셔서(들리셔서*), 가르치다, 으스대다(으시대다*), 으슬으슬, 추스르다(추스리다*), 스라소니(시라소니*)¹²⁾

ㅣ: 가지런하다, 트립, 가시랭이, 나지막하다, 느지막하다, 이지러지다, 구슬리다(구스르다*, 구슬르다*), 가리키다, 금실(←琴瑟), 버짐

ㅡ/ㅣ: 검측하다/검칙하다, 끼적거리다/끄적거리다, 꺼림하다/깨름하다, 꺼림칙하다/깨름칙하다, 푸시시/부스스(부시시*)¹³⁾, 거스르다(대세를~)-거슬리다(눈에~), 흘끗/흘끗/헛끗

위 밖에도 모음의 다양한 변화가 더 있다. 다음으로 자음 현상의 변화로는 끝소리법칙 및 연음, 절음 현상과 관련지어서는 다음의 오용 표현들이 표준어권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 복수 발음을 허용할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외국인 교육에서 복수 발음의 허용은 학습자에게 혼란을 주므로 표준형을 가르치되, 다음 ×는 불허하고 다음 △에 대해서 원칙은 아니지만 광범위한 통용이 나타난다고 알리는 접근이 필요하다.

	○	△	×
끝음/받음	: [끄틀/바틀]	[끄슬/바슬]	[끄출/바출]
끝이/받이	: [끄치/바치]	[끄시], [바시]	[끄티/바티]
꽃이/꽃음	: [꼬치/꼬출]	[꼬시/꼬슬]	
빛이/빛음	: [비지/비출]	[비시/비슬]	
부엌이	: [부어키]	[부어기]	
무릎이/숲이	: [무르피/수피]	[무르비/수비]	

10) 동일 한자 ‘悞’를 ‘괴팍(怪悞)하다’는 ㅏ, ‘오팍(傲悞)하다, 강팍(剛悞)하다’는 ㅑ로 하여 통일이 필요하다.

11) ‘거슴츠레, 게슴츠레’는 어감 차이로 하여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다. 그런데 ‘팬시리’는 ‘팬스레’의 오타기로 처리하고 있지만 이런 부사류는 복수 표준어로 인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으스대다’의 북한어가 ‘으시대다’라 이것도 복수 표준어로 할 만하다.

12) 국어는 ‘스라소니’, 북한어는 ‘시라소니’이다.

13) ‘부시시’는 ‘부스스’의 북한어인데 이런 부사는 복수 표준형으로 해도 좋을 것이다.

(1) ㄴ 첨가

- ① ㄴ 첨가 오용: 고쳐[곤쳐*], 분열[분넬*], 등용문[등농문*]
 ② ㄴ 첨가 필수: 색연필[생년필], 영업용[영엄농]
 ③ ㄴ 첨가 임의 허용: 검열[검넬/거멸], 금융[금녕/그똥]

(2) ㄹ 첨가

- ① ㄹ 첨가 오용: ‘(회파람을) 불어주는[불러주는*], 자르다[잘르다*], 촬영[촬령*], 일요일[일료일*], 아끼려고[아낄려고*], (보따리를) 풀어[풀러*], 으르다[을르다*]’ 등의 ㄹ첨가는 잘못이라 오용 발음을 교정하는 방향으로 훈련해야 할 것이다.
 ② ㄹ 첨가시 의미 대립: ‘날아≠날라, 늘이다≠늘리다, 벌이다≠벌리다’류는 ㄹ첨가시 구별되므로 주의하게 한다.
 ③ ㄹ 첨가 필수: 표준발음법 29항 붙임 1처럼 합성어나 파생어 구조에서는 ㄹ 첨가가 원칙이므로 ‘물약[물략], 설익다[설릭따], 유들유들[유들류들]’로 발음해야 한다.

(3) 된소리화

- ① 평기평음형(平記平音型): 강술, 거[꺼*]꾸로, 거[꺼*]리깎, 곱살(이)끼다, 콧감, 제거예요(제꺼예요*), 번데기, 고두밥, 자투리, 조금, 숙[쑤*]맥, 깜박[빽*]이, 갈[칼*]치, 거시기[거시키*], 망거미(黃昏. cf. 망 거[꺼]미: 곤충). 감[깸*]쪽같이
 ② 평기경음형(平記硬音型): 깎두[뚜]기, 깎둑깎둑, 갑죽[쑤]거리다, 깎뚫[뚫]이(깎뚫이*, 깎뚫이*), 농 지[찌]거리, 눈곱[प्], 눈살[쌀], 등살[쌀] (cf. 등쌀), 물살, 쑥덕거리다, 이맛살, 알조, 안간힘, 으름장[짱], 얼음장[짱], 새침데[떼]기, 폭발[필*], 착잡[참*], 서슴지[찌], 허섭스[쓰]레기(=허접쓰레기), 마늘 종[쫙]
 ③ 평-경음(平-硬音) 쌍형: 강마르다/깡마르다, 거칠하다/꺼칠하다, 괴까다롭다/궤까다롭다, 구부리다/꾸부리다, 깜박/깜빡, 꼬박/꼬빡, 꼬덕/꼬떡, 구기다/꾸기다, 번어가다/뵤어가다, 고까=꼬까(=때때)

이상과 같은 혼동 사례들은 어느 하나만 표준형으로 하면 더 혼란스러운 것들로 특히 부사, 의성어, 감정어류는 복수 표준형의 사유가 충분하면 복수 표준형으로 수용하고 외국인들에게도 두 발음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융통성을 허용할 근거가 약하면 단수 표준 형태를 고수하여 가르쳐야 한다.

한글전용이 가속화하면서 다음 단어들은 장음과 경음 자질을 불규칙성에 유의하여 가르쳐야 한다. 외국인들에게도 장단을 가르치고 평음과 경음의 대립을 유의해 가르치면 된다.

고가: 高價[고까], 高架[고가], 古家[고:가]	대가: 代價[대까], 大家[대:가]
소장: 少將[소:장], 訴狀[소짱]	공적: 公的[공쩍], 功績[공적]
사적: 私的[사쩍], 史蹟[사:적]	인적: 人的[인쩍], 人跡[인적]

또한 이런 경우 방송인들의 발음 오용 지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체증: 滯症[체쥬? 체증?]¹⁴⁾ cf. ‘통증(痛症), 후유증(後遺症), 불면증(不眠症), 중증(重症), 불감증(不感症)’은 모두 [쥬]을 보임.

효과(效果) [효파? 효과?] cf. 역효과(逆效果), 성과(成果), 전과(戰果), 전시효과(展示效果)

5.2. 형태의 변화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 형태나 체언, 용언, 부사 등의 어휘에서 오용이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1) 조사의 변화

다음의 예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 판단하여 보면 학자들도 두 의견이 나온다.

(ㄱ) 올림픽 축구 경기에서, 한국이 스페인에 3 대 1로 졌습니다.

(ㄴ) 올림픽 축구 경기에서, 한국이 스페인에게 3 대 1로 졌습니다.

스페인을 유정명사로 보느냐 부정명사로 보느냐의 문제라 (ㄱ)만 옳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 예도 마찬가지로 사례이다.

(ㄷ) 야당은 {정부 당국에/에게, 정부 당국자에게} 규제 철폐를 요구하였다.

다음 (ㄷ)은 ‘으로부터’가 번역투로 지적받는 사례인데 오용으로 배제하기 어렵지만 복합형 ‘으로부터’보다 간결 형태인 ‘에게’로 고침을 가르칠 필요는 있다. (ㄹ)도 ‘뿐이’가 입말에서 흔해 오용으로만 단정하기 어렵다.

(ㄷ) 청년{에게, 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ㄹ) 남은 책이 한 권{뿐이, 밖에} 없다.

(2) 어미의 변화

다음 우측 용례는 사전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항인데 현대 입말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고, -다고 / -구*, -다구*

-구면 / -구만*

-더러[나더러] / -르더러*[날더러*]

-르는지/ -르런지*

-르게, -르진대 / -르게*, -르진대*

-르까, -르쏘냐 / -르가*, -르소냐*

-이관테 / -관대*

-건대 / -건데*

14) 표준국어대사전 발음 정보에서는 [체증]으로 발음을 들려주는데 ‘症’이 한자 합성어에서 모두 [쥬]으로 나뉘어 [체쥬]이 옳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다음 사항은 이미 복수 표준 어미로 인정하므로 위 사례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마다 = -고말고	-기 마련이다 = -게 마련이다
-인만큼(=-인만치) = -이니만큼(=-이니만치)	-지만- = -지마는(* ‘-지만은’은 틀림)
-세요 = -서요	-스레하다 = -스름하다
-며 = -면서(동시 진행의 ‘-며’)	-기에 ≒ -길래 ¹⁵⁾

(3) 복수 표준 형태의 증가

다음 우측 용례는 표준어 규정 25항에서 비표준형으로 본 형태들인데 상당히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붉으락푸르락 / 푸르락붉으락*	귀락펴락 / 펴락귀락*
신기롭다 / 신기스럽다*	까다롭다 / 까답스럽다*, 까탈스럽다*
-에는 / -엘랑*	-지만 / - 지만서도*
-게끔 / -게시리*	주책없다 / 주책이다*
열심히 / 열심히로*	쌍동밥 / 쪽밤*

(4) 준말 축약어의 증가

통신언어가 발달하면서 시간 절약을 위해 단어를 줄여 쓰는 현상이 보편적이다. 카톡이나 문자를 주고받을 때 자음과 모음 음소를 분해해 ‘ㅋㅋㅋ, ㅎㅎㅎ...’ 식의 음소만으로 적는 것이 일반화하였다. 또한 ‘문화상품권’을 ‘문상’, 지하식당을 ‘지식’으로 쓰는 경우도 많아졌다. 도정제(圖定制)는 ‘도서정가제(圖書定價制)’, 단통법(端通法)은 ‘단말기(端末機) 유통구조(流通構造) 개선법(改善法)’, 도정법(都

15) ‘-기에/-길래’는 ‘-길래’가 입말체에서 널리 쓰인다고 볼 수 있다. 안주호(2003)에서는 ‘-기에/-길래’에 용법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외국인을 위한 문법 표현 연구서인 양명희 외(2014:136-143)에서도 ‘-기에’는 뒷절의 주어 제약이 없다고 하였다.

예) 수지가 울기에 내가 달래 줬다. 수지가 울기에 어머니가 달래 줬다.

반면에 ‘-길래’는 뒷절의 주어로 1인칭이 주로 온다고 하였다.

예) 꽃이 예쁘길래 내가 한 다발 샀다. (○) 꽃이 예쁘길래 민수가 한 다발 샀다. (×)

이 경우도 화자가 공동 관찰자로서 작용하거나 혹은 추측의 경우에는 뒷절의 주어로 3인칭도 허용된다.

예) 동생은 어머니 생신이길래 선물을 샀어요. (○)

(화자가 이러한 상황을 모두 관찰하였을 경우 성립이 가능함.)

동생이 까불길래 형이 때렸겠지. (○)

이러한 ‘-기에/-길래’의 구별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직관으로도 변별적 기술의 이해가 쉽지 않고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더욱이 가르치기 어려워 ‘-길래’가 입말체에 더 많이 쓰인다고 하는 수준에서 가르침이 실용적이다.

整法)은 '도시(都市) 및 주거환경(住居環境) 정비법(整備法)'이라 한다.¹⁶⁾ 미디어 자막을 중심으로 ‘엄청(←엄청나다), 부끄(←부끄럽다)’와 같은 어근 분리 사용 현상도 이런 준말 현상의 한 가지로 볼 수 있다.

(5) 희망 표현의 형용사 활용 현상: 형용사의 명령형/청유형 인정 문제

① 행복하세요/행복해라, 건강하세요/건강해라, 순수하세요/순수해라, 당당하세요/당당해라, 침착하세요/침착해라, 성실하세요/성실해라, 냉정하세요/냉정해라, 조용하세요/조용해라: 형용사에는 원칙적으로 명령이 불가능한데 기원, 회구, 청원의 표현에 널리 쓰이고 있어서 문법적인 오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의 청유형도 마찬가지이다.¹⁷⁾

② 행복합시다/행복하자, 건강합시다/건강하자, 순수합시다/순수하자, 당당합시다/당당하자, 침착합시다/침착하자, 성실합시다/성실하자, 냉정합시다/냉정하자, 조용합시다/조용하자: 형용사에 청유형이 어렵고 이들은 단어마다 차이가 있는 느낌이라 모두 오용으로 단정하기 어렵게 한다. ‘행복합시다, 건강합시다’도 일부 어색함이 있지만 청원, 회구형 문맥에서 쓰임을 허용하게 만든다.

(6) 애 불규칙 현상의 확산

‘하다 → 하여(여 불규칙) → 해(애 불규칙)’처럼 1단계 여 불규칙 다음의 2단계 변화에서 애 불규칙 현상이 나타나는데 애 불규칙은 아직 학교문법에서는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파랑다 → 파랑+아 → 파래”처럼 1단계 ㅎ 불규칙 활용에서도 2단계로 애 불규칙 활용이 나타나므로 애 불규칙 활용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애 불규칙 활용의 사례로 다음도 나타난다.

(ㄱ) 나는 그가 그 일을 그렇게 하기를 {바라, 바래}.

(ㄴ) 나는 그가 그 일을 잘못 판단하는 것 {같아, 같애}.

위 사례는 ‘바라다’와 ‘같다’의 규칙 활용에 전혀 문제가 없으나 ‘-아’ 입말 종결형에서 애 불규칙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점차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5.3. 문장(통사)의 변화

(1) 높임법의 변화

현대국어에서 가장 큰 통사적 변화는 높임법에서 ‘하오체, 하계체’와 같은 등분이 약화되고 ‘해요체’와 ‘해체’가 확산된 점이다. 이는 한국 사회가 신분제에 따른 계급사회를 벗어나 만민평등의 민주 사회로 변하면서 말차림 등급의 복잡함을 피하고 해요체와 해체로 단순화하는 추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16) 2014-12-10 한자문맹 벗어나자 [24] 한글로만 쓰는 한자 약어

17)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류의 명령형과 청유형 허용 문제와 같은 문법적 모호성 영역의 탐구학습을 다룬 김현선(2009)에서 이들 용법의 논리적 타당성을 제시한 것을 참고하라.

로 보인다.

일제시대에 최현배(1937)는 ‘우리말본’에서 국어의 높임법을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의 네 등분을 설정하고 해체(반말)를 따로 두어 5종 체계로 기술하여 해요체를 아직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료들에 따르면 해요체는 근대 말 신소설 이래로 입말과 여성어에서 잘 쓰이고 있었는데도 최현배의 판단으로는 높임법의 등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국어에서 해요체가 주목받은 것은 성기철(1985)에서 해요체를 설정할 것을 주장하면서이니 성기철(2007)에서도 현대 경어법에서 가장 큰 변화는 해요체와 해체의 확산이며 해요체의 확산은 함쇼체(하십시오체)와 하오체의 쇠락을 뜻한다고 보았다고 하였다(박지순 2014:183).

(2) 높임법의 과잉 변화

국어에는 다음과 같이 존귀자에 관련한 것을 높이는 간접높임법이 있다.

- (ㄱ) 선생님께서는 아끼시는 고서가 많이 (계시다*, 있으시다). : 주어 간접 높임
- (ㄴ) 할아버지께서는 귀가 {크다, 크시다}. : ‘크다’도 맞지만 ‘크시다’도 허용된다.

그러나 존귀자 관련이라도 사물을 높이는 것은 적절한 용법은 아니다.

- (ㄷ) 선생님, 넥타이가 참 (예쁘시네요*, 예쁘네요).
- (ㄹ) 선생님, 집이 참 (크시군요*, 크군요).
- (ㄹ) 선생님, 강아지가 참 (예쁘시군요*, 예쁘군요).

위 (ㄷ, ㄹ, ㄹ)은 모두 존귀자인 선생님 관련 사물을 높이려고 ‘-시-’를 붙였는데 (ㄷ, ㄹ)은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흔해져 오용이라고 느끼지 않고 마구 쓰다 보니 익숙해졌다. 그러나 ‘넥타이, 집’은 높이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ㄹ)의 강아지를 높이는 것이 아주 어색하여 잘못이라고 느끼는 데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런데도 (ㄷ, ㄹ)의 ‘넥타이, 집’에 ‘-시-’ 삽입이 흔해진 것은 과잉 높임의 관습화 탓이라 이제는 오히려 붙이지 않는 것이 어색해졌다. 요즘은 광잉 높임이 ‘여자분, 남자분’이라고 하는 것을 ‘남편분, 부인분, 팬분, 스타분’처럼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물 존대가 갑자기 확산되어 국어 높임법의 근간을 어지럽히는데 고객 우선의 소비자 중심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 (ㄱ) 커피는 7천원이십니다 → ...입니다.
- (ㄴ)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 나왔습니다.
- (ㄷ) 커피가 진하시면 물을 더 드리겠습니다 → 진하면...
- (ㄹ) 이번 상품 디자인 너무 예쁘시죠 → 예쁘죠.
- (ㄹ) 비수기 할인가격이세요 → 가격이에요.
- (ㅁ) 간호사: “아버님, 혈압이 높게 나오시네요.” → 나오네요.
- 간호사: “아버님, 주사 맞으실게요.” → 맞으시겠습니다.

- (ㄱ) 보험회사 광고: “별금이 나오셨다고요?” → 나왔다고요.
 (ㅇ) 사회자: “사장님 말씀이 계시겠습니까.” → 있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ㅈ) 주인에게 손님: “아저씨, 이 가게에 볼펜 있으세요.” → 있어요?
 cf. 선생님, 볼펜 있으세요? / 선생님, 볼펜 갖고 계세요?

(ㄱ)-(ㅈ)은 과잉 높임의 사례를 모아 본 것인데 (ㅈ)은 손님이 주인에게 묻는 것이라 높임 필요는 없다. 그러나 cf.에서 선생님에게 볼펜 소유 여부를 묻는 것은 맥락이 달라 높임이 자연스럽다. 이처럼 맥락에 따라 높임법을 잘 분별해 써야 한다.¹⁸⁾

높임법이란 용어도 대우법이란 용어가 여러 상황을 고려하므로 실질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높임법을 격식체(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비격식체(해요, 해)로 가르치는 기존 높임법 분류는 명쾌한 분류는 아니다. 해라체와 해체가 격식과 비격식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데서 그렇다. 최현배(1937)처럼 아주높임, 예사높임, 예사낮춤, 아주낮춤과 같은 분류나 다음과 같이 박창해(2003)처럼 정식화법, 친교화법, 중간화법, 평교화법 같은 용어로 기능을 구별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서법	정식화법	친교화법	중간화법	평교화법	친교화법	공손화법
평서법	-하니다	-오/-아요	-네	-다	-아	-나이다
문의법	-하니까	-오/-아요	-나	-니	-아	-나йка
권유법	-하시다	-오/-아요	-세	-자	-아	-사이다
명령법	-하십시오	-오/-아요	-게	-라	-아	-소서
(등분)	(극존칭)	(보통존칭)	(보통비칭)	(극비칭)	(반말)	

(3) 피동 표현 ‘되다’: 현대어에서 능동적 ‘하다’보다 피동적 ‘되다’가 널리 쓰이는데 이는 공손 전략과 관계된다. 가령 자기의 주관적 주장의 표현에서도 우리는 ‘생각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생각된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생각은 스스로 하는 것임에도 그렇다. 이는 그만큼 자기 주장에 대한 겸양의 공손 전략으로 볼 수 있다.

(4) 인용 표현 ‘라고’

현대 한국어의 입말에서 ‘고’로 해도 될 것을 ‘라고’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ㄱ) 그는 “중국이 북핵 개발을 막아 줄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말하였다.
 (ㄴ) 그는 중국이 북핵 개발을 막아 줄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하였다.
 (ㄷ) 그는 중국이 북핵 개발을 막아 줄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하였다.

18) 인터넷에서는 높임법 예의 판단이 모호한 새로운 시도로 ‘하오체, 음슴체, 줌마체, 합쇼체’가 쓰인다고 한다. 중앙일보 2015.4.25., [입문영의 호모디지쿠스] “하오체·음슴체·줌마체·합쇼체 ... 예의 기준 모호한 인터넷 대화 방식” 참고.

(ㄱ)은 글말로 “ ” 부호 밖에는 ‘라고’를 붙여야 맞다. (ㄱ)을 입말로 말한다면 (ㄴ)처럼 하면 된다. 그런데 (ㄴ)으로 함이 정상인데 (ㄷ)처럼 말하는 사람이 많다.

(5) 시간 표현

현대국어에서 ‘-았었-’이 과거완료 번역투나 대과거에 쓰이는데 이들은 ‘-았/었-’만으로 고쳐도 아무 문제가 없다. 단순과거 표현을 공연히 ‘-았었-’으로 중복해서 쓰는 경우가 많으니 ‘철수가 왔다.’를 굳이 ‘철수가 왔었다’로 할 필요는 없다. 미래 추측의 ‘-겠-’은 공손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ㄱ) 철수는 어제 영화를 보러 {갔었다, 갔다}.

(ㄴ)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랍니다}.

(ㄷ) 앞으로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예상됩니다, 예상합니다}.

(ㄹ) 보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ㄹ)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감사의 시점이 현재이므로 현재시제로 해도 되고 과거의 사건에 대한 감사이므로 과거시제로 해도 무방할 것이다.

(6) ‘되다’의 용법 확산

{건강한 나날, 좋은 시간, 행복한 결혼} 되세요: ‘되다’가 어떠한 시간이나 그런 상황을 누리라거나 이루라는 희망 표현에서 잘 쓰인다. 다음 표현의 ‘되다’의 용법도 오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 우측 형태로 씀이 더 간결하지만 공손 차원의 용법으로 다양하게 확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ㄱ) 물건 값은 5만 원이 되겠습니다. - ... 5만원입니다.

(ㄴ) 남편 되시는 분인 박00 씨 - 남편이신 ...

(ㄷ) 여기가 덕수궁이 되겠습니다. > ... 덕수궁입니다.

(7) 번역어투의 범람

광복 후에 우리말 도로 찾기 운동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국어순화 운동을 통해 일본어와 영미 외국어에 순화에 힘썼으나 아직도 일본계 외래어를 흔히 볼 수 있다. ‘곤색(紺色, こんいろ) > 진남색. 감청색; 기스(きず) > 흠, 상처; 노가다(どかた) > 노동자. 막노동꾼; 다대기(たたき) > 다진 양념; 단도리(だんどり) > 준비, 단속; 땡깡(てんかん) > 생떼, 행패. 억지; 땡땡이가라(てんてんがら) > 점박이 무늬, 물방울무늬; 퐁퐁(とんとん) > 득실 없음, 본전; 사라(さら) > 접시; 셋셋세(せっせっせ) > 짹짹; 소테나시(そでなし) > 민소매’처럼 여전히 쓰는 일본어가 많다. 그런데 문장체에서도 광복 이후 견고히 남아 있는 것이 일본 문체와 영미 문체의 유입으로 퍼져 있는 번역어투이다.

(ㄱ) ...에 있어서(...に於て/ において) > ... 에서

(ㄴ) ...에 다름 아니다(... に他ならない = ... にほかならない) > ...에 불과하다, ...일 뿐이다.

- (ㄷ) ... 주목에 값하다(注目に 値する)[ちゅうもくに あたいする] > ... 할 가치가 있다.
- (ㄹ) 아무리 ... 해도 지나치지 않다(It is not too much to ...) > ... 함이 당연하다.
- (ㄴ) 이것을 고려에 넣는다면(take account of, take account into) > 이것을 고려한다면
- (ㄴ) ... 할 필요가 있다(It is necessary to), ...을 필요로 하다(be in need of) > ...이 필요하다.
- (ㄷ) ... 할 예정으로 있다(be going to ...) > ... 할 예정이다 / ... 할 것이다 / ... 할 참이다.
- (ㅇ-1) 회의를 가지다(have a meeting) > 회의하다.
- (ㅇ-2) 아이 셋을 갖고 있다(have three children). > 아이가 셋이다.
- (ㅇ-3) I have a dream >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 나에게서 꿈이 있다.
- (ㅇ-4) 나는 세 명의 가족을 가지고 있다. 나는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말해 보아라. > 나는 가족이 세 명이다. 나는 친구가 많다. 좋은 생각이 있는 사람은 말해 보아라.
- (ㅇ-5) Have a good time. > 즐거운 시간 가지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 (ㅇ-6) 기자회견을 갖다, 회답을 갖다, 간담회를 갖다 → 기자회견을 열다, 회답을 열다(개최하다), 간담회를 하다.
- (ㅈ) 그는 그의 친구를 소개했다(He his) > 그는 자기 친구를 ...
- (ㅊ) 한 잔의 커피(a cup of coffee) > 커피 한 잔
- (ㅋ) 사람들의 대부분은(most of the people) > 대부분의 사람들은 / 사람들은 대부분 ...
- (ㅌ)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I need you). > 나는 네가 있어야 한다.
- (ㅍ) 학생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about the student). > ... 학생들에게 ...
- (ㅎ)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one of the most) >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 하나는

그리고 식민지 의식, 약소국가 의식이 내재되어 다음과 같은 변방 의식, 사대주의적 표현도 흔히 쓰인다.

- (ㄱ) 미국에 들어가, 중국에 들어가 > 가, 건너가
- (ㄴ) 미국에서 한국에 나왔다. > ... 왔다 / 들어왔다.
- (ㄷ) 미국 본토, 중국 본토, 일본 본토: 우리는 변방 섬인가?
- (ㄹ) 한반도: 일본의 조선 비하 식민사관이 담긴 표현이라 쓰지 말아야 한다.

5.4. 담화의 변화

광복 70년을 돌아볼 때 현대는 담화의 전달 방식, 담화의 구성 방식, 담화의 주제와 내용, 담화의 길이(분량), 담화 문장의 내포와 접속 표현, 종결 표현, 대용 표현, 인용 표현, 문장의 의미결속과 추론 방식 등에서 달라졌고 화자와 독자 사이의 어조도 달라졌다.

각 분야별로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매체로 말과 글이 생산되므로 담화 방식의 변화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편지 한 가지만 보더라도 과거의 편지 방식과 오늘날의 이메일, 문자, 카톡 등의 전달 방식을 비교할 때 그런 차이는 분명히 드러난다. 특히 인터넷 매체의 등장으로 한국사회의 담론 방식

은 크게 변하여 인터넷에서의 긍정적 양상도 있고 댓글로 인한 집단따돌림과 자살이라든가 고교생이 SNS를 통해 이슬람 반군(IS)에 가입하러 조국을 떠나는 일이 생길 정도로 인터넷 담론의 부정적 사회적 파장도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민족사의 총체적 정통성을 놓고 겨루고 있는 남북한이 서로 대결하다 보니 이념 대결의 정치 언어의 혼란이 극심하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북한이 통일전선 전략을 통해 주체사상을 남한 대학가, 노동계에 침투시켜 흑세무민의 선동언어를 생산하고 주사파가 자생하여 중북세력을 형성하고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호응해 내란선동을 피하다 해산선고를 받는 정당이 나올 정도로 한국사회의 정치담론은 한국사회의 고질이 되어 정치 대화방식, 협상 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는 평소 대화와 토론 훈련이 가장과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다.

이런 담화 개선을 위해서는 대화법 교육부터 다시 가정과 학교교육에서 해야 한다. 특히 가정에서 부모가 뱉어내 상처를 주는 부정적 표현들은 자녀의 인성에 치명적 해를 끼친다.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 쓸모 없는 녀석 같으니, 어디서 말대꾸야, 심부름 제대로 못하니, 어른들 애기에 끼어들지 마, 공부도 못하면서 무슨 오락이야, 영철이는 몇 점이니, 우리 애는 철이 없어요, 네 누나는 너만할 때 너보다 똑똑했다, 딴 거 틀어, 오빠는 남자잖아, 숙제부터 해, 쓸데없는 것 사지마, 만화만 보지 말고 책 좀 읽어라, 맨날 돈타령이야, 용돈 까먹지마,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웬일이니 공부를 다하게,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해, 너희 선생님 왜 그런대, 뭘 또 사달래, 너 같은 애가 세상에 또 있겠니, 그게 얼마짜런데 잃어버려, 울지 마 엄마가 또 사주면 되잖아, 아무도 안 보는데 어떡냐, 제발 말 좀 들어라, 넌 허고 현 날 맞고 들어오냐, 잘 났어 정말,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 되지 마라, 공부만 잘 하면 해달란 것 다 해 줄게, 넌 정말 구제불능이야, 바보야 이것도 몰라, 커서 뭐가 될래, 누굴 닮아 그러니, 넌 왜 만날 그 모양이니, 네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니

표기 문체에서는 한자가 지배적이던 해방 공간과 국한혼용체가 지배적이던 80년대까지의 글쓰기와 90년대 이후 인터넷 컴퓨터 문서 작성이 일반화하면서 한글전용체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자 교육이 부실해져 국어교육에서 어휘 교육이 동시에 부실해진 것은 반성을 요한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도 고급 단계에서는 한자 500자 정도의 소양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5.5. 의미의 변화

어휘를 중심으로 의미 변화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쏘다’가 “한턱을 내다”의 소어로 쓰이면서 일반 어화한다든가, ‘착한 가격’에서처럼 ‘착하다’가 “실속 있다, 저렴하다”의 뜻으로 쓰인다든가, 남녀 중성화로 인해 호칭어에서 여학생들도 80년대에는 ‘오빠’ 대신 ‘형’을 쓴다거나, 외래어 ‘셀프’가 ‘거피는 셀프입니다, 셀프 주유소, 셀카’처럼 창조적으로 쓰인다거나, 인터넷 통신 공간에서 각종 신어가 창조되는 것은 신어 생성과 의미 창출이 밀접함을 보여 준다. 한편으로 시대가 민주화되면서 여성, 장애인,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표현들이 과거에는 아무렇지 않게 썼으나 오늘날은 차별어가 되는 경

우가 혼해 어휘 표현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회가 되었다.

‘너무’는 ‘너무 {춥다, 나쁘다, 아프다}’처럼 부정적으로 과도할 때에만 씀이 옳다고 했지만 오늘날은 ‘너무 {예쁘다, 좋다, 맛있다}’처럼 ‘너무’ 다음에 긍정적 어휘도 많이 오므로 이런 표현을 잘못이라 하기 어렵게 되었다. ‘너무’가 ‘되게, 매우’처럼 강조 의미로 정도부사화하여 이를 제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다음 사례는 고유어도 의미 영역의 중첩 현상이 나타남을 보여 준다.

(ㄱ) 이것과 저것은 {다르다-틀리다}.

(ㄴ) {이른, 빠른} 시일 안에 들르겠습니다.

한자 소양이 약화되면서 한자어 오용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장례 후 일정 기간 후에나 쓰는 ‘추모, 추도’와 장례 기간 중에 쓰는 ‘애도, 조위, 조문’을 혼동한다거나, ‘명복을 빈다’의 ‘명복’을 ‘축복’과 혼동하거나 슬픔과 기쁨의 ‘애환’을 슬픔과 환란 고통으로 오해한다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인상착의는 물론이고 옷차림도 비슷해’라는 의미 중복 기사 제목이 보이고 ‘유래(유례·類例의 잘못) 없다, 막연(막역·莫逆의 잘못)한 사이, 환골탈태(환골탈태·換骨奪胎의 잘못) 등이 자주 거론된다. ‘유명세(有名稅)’는 ‘유명하기 때문에 겪는 불편’을 세금에 비유한 부정적인 말이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유명세를 떨쳤다”며 긍정적 표현으로 둔갑하기도 한다.¹⁹⁾ ‘발암물질(發癌物質)’을 ‘바람물질’, ‘사생활침해(私生活侵害)’를 ‘사생활치매’, ‘고정관념(固定觀念)’을 ‘고전관념’, ‘무난(無難)하다’를 ‘문안하다’, ‘연예인(演藝人)’을 ‘연애인’, ‘폐해(弊害)’를 ‘폐혜’, ‘훼손(毀損)’을 ‘회손’으로 쓰는 잘못도 빈번하다.²⁰⁾

외국어, 외래어 남용이 극심해져 콩글리시가 형성되거나 ‘게임, 배틀, 디테일하다, 메리트, 업그레йд, 업(up)되다, 쿨하다’처럼 한국식 영어가 석여 쓰임도 문제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인접 관련어 혼동 현상이 관용적으로 쓰이는 경우이다.

(ㄱ) 도둑을 잘 지킨다 > 집을 잘 지킨다.

(ㄴ) 열쇠가 안 열린다 > 문/자물쇠가 안 열린다.

(ㄷ) 맨발 벗고 뛴다 > 양말 벗고 (맨발로) 뛴다.

6. 맺음말

우리는 지금까지 광복 70돌을 맞으며 한국어의 변화를 개괄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방언의 소멸, 외국어 범람, 한국사회의 불통 위기, 남북 불통의 위기, 이주민 정책의 문제점 등 여러 위기와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단군 이래 나라와 나라 맞닿은 위상이 가장 높아져 20-50 클럽에 들어선 7대 국가에 들고 무역 11조 달러를 달성한 7개국

19) 유석재, 조선일보 2014-10-27. 한자문맹 벗어나자 21

20) 유석재, 조선일보 2014-11-23 한자문맹에서 벗어나자 23

에 들어설 정도로 저력을 갖추어서 선진국 문턱에 올라선 희망의 시대를 맞기도 하였다.

국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워도 한국은 긍정적 지표를 많이 보여 주고 있어 한국이 다시 뭉쳐 나아간다면 선진국 진입은 물론 한류 바람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여 한국어의 인기도 한국어를 세계 10대 언어 속에 들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6천만 정도 인수로 20-50 클럽의 7대 국가에 들어 그들의 문화를 10대 문화국가의 반열에 올린만큼 남북 8천만이 자유평화의 통일을 이루고 단합하면 한국어는 21세기 국제어로 당당히 자리 잡을 것이다.

당나라 소정방(蘇定方)이 백제를 치고 귀국하여 당나라 고종에게 귀국신고를 하니 고종은 “왜 신라마저 정벌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는데 소정방은 “신라는 임금의 어질어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충의로써 나라를 받들고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을 부형(父兄)과 같이 섬기므로 비록 나라는 작더라도 감히 도모하기 어려워 정벌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삼국사기 열전의 김유신전에 기록하고 있다.

제2의 통일신라인 대한민국은 화랑정신으로 뭉친 통일신라의 지도부와 백성처럼 머지않아 다가올 남북통일을 준비하고 주변 강대국들이 부러워하는 강국을 이룩하는 날을 실현하는 민족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교육자들도 이런 사명과 희망을 잃지 말고 한국어의 표준화와 세계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각 지역 언어권별로 뭉쳐서 한국어의 교수학습, 교재개발, 평가 도구 개발에 이론적, 실천적으로 협력해 각 지역의 한국어교육을 발전시키고 세계 속의 한국어교육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신항(1991), 현대국어 어휘사용의 양상, 태학사
- 강연임(2011), 대중가요의 외래어 사용양상과 국어교육적 개선방안, 인문학연구 85, 충남대 인문학연구소
- 강영안 역/C. A. 반 퍼슨 지음(1994), 급변하는 흐름 속의 문화, 서광사.
- 국립국어원(2006), 차별적-비객관적인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09), 이런 말에 그런 뜻이?: 차별과 편견을 낳는 말들,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12), 재중동포의 언어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14), 재미동포의 언어실태조사, 국립국어원
- 권장희(2010), 우리 아이 게임 절제력, 마더북스
- 김상윤(2002), 욕설의 특질에 관한 연구, 화법연구 4, 한국화법학회
- 김평원(2012), 청소년 욕설문화 개선 프로그램의 메타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현선(2009), 국어 인식 확장을 위한 문법적 모호성 교육 연구: {-하다} 용언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 민현식(1999), 국어정서법연구, 태학사
- 민현식(2002), 국어 사용 실태 조사 방법론 연구, 사회언어학 10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 민현식(2007), 구어적 통용과 문어적 오용, 문법교육 6집, 한국문법교육학회
- 민현식(2009), 국어 능력 실태와 문법 교육의 문제점, 국어교육연구 44, 국어교육학회
- 민현식(2014), 한국의 대외 한국어 교육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 국어교육연구 34,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박인기(2012), 욕설 언어현상에 대한 교육적 문화적 진단과 대안 모색, 화법연구 20, 한국화법학회
- 박지순(2014), 현대국어 상대높임법의 맥락분석적 연구: 일상적 준구어 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연세대 박사논문

- 박창해(2003), 성경 번역문의 문체와 문체, 성경원문연구 13, 대한성서공회
- 배주채(200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 성기철(1985), 현대국어 대우법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개문사
- 성기철(2007), 한국어 대우법과 한국어교육, 글누림
- 안주호(2003), 연결어미 ‘-기에/-길래’의 특성과 형성과정, 국어교육을 위한 문법 탐구. 한국문화사
- 양명희 외(2014), 한국어교육 문법 · 표현 내용 개발 연구(3단계),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 양명희·강희숙(2010), 학교생활에서의 욕설 사용 실태 및 순화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양수경(2012), 북한 이탈주민의 언어적응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에스비에스(SBS) 스페셜 제작팀(2012),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 리더스북
- 오새내(2011), 사회언어학적 맥락으로 본 방승언어, 한국어학 51. 한국어학회
- 임성빈 편(1997), 현대문화의 한계를 넘어서, 예영커뮤니케이션.
- 장경희 외(2011), 청소년 언어생활 실태조사, 국립국어원
- 장경희(2010), 국어 욕설의 본질과 유형, 텍스트언어학 29, 텍스트언어학회
- 정희창(2010), TV 뉴스 텍스트의 국어교육적 분석, 제5회 국립국어원-SBS 방송언어공동연구 자료집, 국립국어원
- 조이스 마이어 저(2013),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두란노
- 최혜원(2011), 표준어 정책의 새로운 방향: 복수 표준어 발표의 경과와 의의, 새국어생활 21권 겨울호
- 한국교총(2012), 차별, 편견적 언어 사용에 대한 학생인식 설문조사 결과
- 한성일(2010), 대중가요에 쓰인 영어 가사의 기능 연구, 텍스트언어학 29, 텍스트언어학회
- Bergmann, Anouschka et. als.(2007), Language files, The Ohio State University
- Bloomfield, L.(1933), Language, New York: Henry Holt
- Cox, C.(1988, 2005), Teaching language arts: A student-and response-centered classroom, Pearson Education, Inc.
- Saussure, F. de(1959),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New York: McGraw-Hill
- Thornbury, S.(1999), How to teach grammar, Longman
- Wardhaugh, R.(2002:189), Sociolinguistics, Blackwell

<부록>

대한민국의 탄생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날은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만든 제헌절,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다. 7.17보다 앞서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198명의 제헌의원들을 선출하고 5월 31일에 제헌국회 1차 회의를 열어 국정을 심의하기 시작했고 7월 12일에 헌법안을 통과하였으며 17일에 헌법을 공포하였고 20일에 국회에서 간접선거 방식으로 초대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였다. 24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식을 거행하고 8월 15일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고 12월 12일에 유엔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

제헌국회 개원일인 5월 31일 10시에 임시의장 이승만은 단상에 올라가 사회봉을 잡고 제1성으로 새나라를 시작하기 앞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 기도문은 오늘에 읽어도 명문이다. 대한민국 국회 헌정사의 기록인 속기록 첫 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을 영원히 기록하고 있다.

-----<국회 속기록 제1호>-----

임시 의장(이승만)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목사) 기도(일동 기립)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지요,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誠心)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체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呈示)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塗炭)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福樂)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

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無力)한 것을 생각할 때 지(智)와 인(仁)과 용(勇)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완전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 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第一回 國會速記錄 第一號 國會事務處

宣統二年五月三十一日(月曜)上午十時

國會第一次會議開次

- 一. 開會
- 二. 愛國歌奉唱
- 三. 國旗에 向하야 敬禮
- 四. 殉國先烈에 對한 默念
- 五. 議員出席報告
- 六. 國會選舉委員會委員長人事
- 七. 臨時議長推薦
- 八. 國會臨時準則決議件
- 九. 議長及副議長選舉
- 十. 議長就任辭
- 十一. 休會

討論議案件

- 一. 國會選舉委員會委員長人事件
- 二. 臨時議長推薦件
- 三. 國會臨時準則決議件
- 四. 議長·副議長選舉
- 五. 議長·副議長就任人事

(上午十時二十分開議)

○國會選舉委員會事務總長(全奎弘) 지극부러
國會第一次會議을 始作합니다

(愛國歌奉唱)

(國旗에 向하야 敬禮)

(殉國先烈을 爲하야 默念)

○國會選舉委員會事務總長(全奎弘) 暫聞 報
告해 드리오습니다 지극부러 議員一九八八 全

部 登錄되시고 오날一九八八 全部다 出席
이 되였습니다 報告 드립니다
(國會選舉委員會委員長 議員一同拍手)

一. (國會選舉委員會委員長人事件) 一

○國會選舉委員會委員長(盧鎮高) 商議하신 國會議員
여러분에게 제가 人事의 말씀을 드리게 된것을
榮光으로 生覺합니다 簡單히 몇마디 말씀을 드
리려고 합니다 國會選舉委員會는 選舉에 對한
責任을 가지고 選舉法에 依支해서 選舉를 實施해
왔고 五月十日 總選舉에서는 二百選區中에서
一九八八의 當選이 되어서 여러분이 國民의 選
舉로써 國會議員의 當選을 얻으시게 되었습니다
다 國會議員은 決定되었으나 아직 國會가 成
立이 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國會召集에 對한 權
限所在가 定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國
會選舉委員會로서는 우리가 關係한 性質이 아니
지만 不得已할수없이 召集에 對하야 豫備하게
되었고 同時에 日차 場所를 여러분에게 알리
드렸으니 여러분이 參席해 주셔서 우리로서는
感謝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는 여러분의 意見으로서 國會가 成立하게 된것
을 크게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簡單히 이것으로
人事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拍手)

一. (臨時議長推薦件) 一

○國會選舉委員會委員長(盧鎮高) 順序에 依支해서
臨時議長을 推薦하게 되는데 議員가운데에서
最高年長이 되시는 李承晚博士를 臨時議長으로

推薦하는 것이 어떠습니까
(議員一同拍手)

그러면 臨時議長은 決定되었습니까 제가 말
씀드리기에 罪陳하오나 李承晚博士께서 就
任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承晚議員 議長席에 登壇 一同拍手)

○臨時議長(李承晚) 大韓民國獨立民主國 第
一次會議을 여기서 열게 된것을 우리가 하
나에게 感謝해야 할것입니다 宗教思想 무엇
은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날을 當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랑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남에게 感謝를 드
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誠
心으로 믿어서 하나남에게 우리가 感謝를 드
릴터인데 李允榮議員나오셔서 簡單한 말씀으로
하나남에게 祈禱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李允榮議員 祈禱一同起立)

이宇宙와 萬物을 創造하시고 人間의 歷史를 進
행하시는 하나남이시여 이民族을 도와보시고
이땅에 祝福하셔서 感謝에 넘치는 오날이 있게 하
실줄을 주님께 저희들은 誠心으로 感謝하나이
다 오랜時日 동안 이民族의 苦痛과 呼訴를 들으
시사 正義의 칼을대서 日帝의 暴力을 肅清하시
하나님은 이제 世界萬邦의 良心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民族의 念願을 들으심으로 이기歷
史的 歡喜의 날을 이時間에 우리에게 오게 하
실줄 하나남의 신령이 世界萬邦에 正視하신것
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남이시여 이로

부러 南北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이 어려운
苦痛과 羞恥를 심원하여주시고 우리 민족 우
리同胞가 손을잡아잡고 웃으며 노래부르는날이
우리앞에速히오기를 祈도하나다 하나님이
시여 顧치아니한 民生의塗炭은 剋면길수록
이땅의悲觀의 權勢가擴大되나 하나님이 저
하신榮光은 이땅에 오지않을수밖에없을것
되들은 생각하나다 顧치아니한 우리朝鮮獨立
한때 南北統一을주시옵고 또한 우리民生의
福樂과 아울러 世界平和를 許諾하여주시옵소
서 저속하신하나님의뜻에依從하여 저죄들은
聖스럽게 擧함을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民族
의代表가 되었읍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責
任이 重且大한것을 저죄들은느끼고 우리自身
이 眞實로無力한것을 생각할때 韓仁과勇과
모一是 總의根源이되시는하나님앞에 이러한
素情 저죄들이 講求하나다 이제 이로부터
國會가成立이되여서 우리民族이 愈顯이되는
모一是 世界萬邦이注視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問題가 圓滿히解決되여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完全自主獨立이 이땅에오며 子孫萬代
에빛나고 푸르른國史를 저죄들이定하는 이事
業을 完遂하게 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會議을 司會하시는 議長으로부터 모든우리議
員一同에게 健康을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良
心의正義와 威信을가지고 이榮光을 完遂하게
도와주시옵기를 祈도하나다 歷史의첫걸음을
잡는오늘의 우리의歡喜와 우리의感激에넘치는
이民族의기쁨을 다하나님에게 榮光과感謝를
올리나이다 이모든말씀을 主에수크리스도 이
를을 받드며 祈도하나다 「아멘」

○臨時議長(李承晚) 다 音席하시요 그동안
에 準備委員들이 이악기한것이 다있었지만
여기에對해서는 法理的으로 해나가기가 어려
운가람으로해서 지금은 選舉委員會가신盧
惠氏가正式으로 開會를宣言한가람에 지금부터
는 第一次國會議議가 正式으로 開會된것입
니다 따라서 盧惠氏와 또 選舉委員會에서
努力하신것을 國會全體가 모두感謝를드리지
않을수없습나다 그분들이 努力으로서 다모든
일을 充分히進行하신것을 우리가 다感謝하여
집니다 以後라도 時間있으면 우리가 그분들
을 잘 알리感謝를 表할機會가 있기를 바랍
니다 지금은 時間이 缺乏하니 順序에따라서
순서進行하게되겠는데 지금 여기서되여가는일은
모두 國會에서 正式으로 해가는일이니까 그
렇게를생각하고 簡單히 할수있는대로 順序에
重要하고 急한것으로만 우리가다處決하고서
열두시간에 다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다음順
서에對해서는 臨時議長 推薦이라하였는데 國
會에서 非公式으로 臨時議長은 지난번에 推
薦하였으나 選舉委員會委員長의 推薦에依支
하야 여기서 있을것을 다條理를밝여서 正式
으로 해나가는데이니가 여기에對해서 어떻게
推薦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을해주시요 저는
여議會에서 다시 이問題에對해서 再進行할것
은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既法에 準備委員
會에서 다作定한것으로 나불臨時議長을하라고
해서 議決이되였고 또 지금은 選舉委員會에서
이만큼되었으니가 지금 다음問題는 國會議時
推則決議案일것입니다 그러하니까.....
國會議推則決議案이 決議案에對해서 어떻게
하자는 節次를 말하면 좋겠어요 이準則은

다만 正式國會에서 條理만을 우리가決定하는
것이니까 그렇게들하시요 簡單한 議議로 다
作定해주시요 議員여기서 條文을朗讀하게될
니까
一(國會議時準則決議의件)一
○尹錫禧議員 國會議時準則決議案이 있다고했
는데 미리 그書類를 配付해주셨으면 大端히
感謝하겠습니다 그것을 要求합니다
○國會議推則委員會事務總長(全奎弘) 지난二十
七日配付해드렸는데 萬一한가지선은이제시다면
餘部를가져다가 드리겠습니다
○臨時議長(李承晚) 누가여기서 한분일어나
서 읽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었으면 좋겠습
니다
○國會議推則委員會事務總長(全奎弘) 그러면 全
文을 한번여기서 읽겠습니다
一、國會議時準則決議案(案)
一、本決議案 國會議法과 國會議規則이 制定될때
까지의 國會議 臨時準則으로할것
二、本決議案(案)은 國會議推則決議에서 豫備的
으로 通過하고 國會議員이 正式으로集會
된後에 그決議에依하여 施行할것
決議案(本文)
一、國會議員은 國紀四二八年五月三十一日
午前十時에 國會議事堂에 集會할것
二、集會한議員은 當選證書를事務處에提시하고
議員登錄簿에 署名登錄할것
三、集會한議員이 在籍議員三分之二에 達한때
에는議長一人과 副議長一人의 選舉를開
始할것

*주제 특강

언어 변화와 한국어 교육

조현용(경희대 국제교육원)

1. 한국어 교육에서 언어 변화 교육은 필요한가?

오늘날 외국어 교육은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의사소통식 접근법이 외국어 교육에서 주를 이룰 수밖에 없는 원인이기도 하다. 과거의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비교적 의사소통과는 관계가 적었다.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로 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었다. 따라서 작문 교육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읽기 교육에서는 최근의 글을 읽는 경우도 있었지만 주로 고전 읽기가 주요한 학습 목표였기 때문에 과거의 글을 만나는 것이 학습 과정에 기본이 되었다. 따라서 고전에 쓰인 글을 읽기 위해서는 과거의 문법, 과거의 어휘, 과거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었고, 따라서 언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이해해야만 했다. 그러나 현대 외국어 교육에서는 보통 고전 읽기를 기본적인 목표로 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언어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 덜하다.

언어 변화가 외국어 교육과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어휘 교육은 언어 변화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여전히 영어 어휘 교육에서는 어원 교육이 중요하다. 영어를 배운 학습자들 중에는 영어의 어원에 대해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보다 잘 아는 경우가 많다. 모국어 화자의 경우 어원을 알 필요성은 적을 수 있으나 외국어로서의 학습자의 체계적인 어휘 학습을 위해서는 어원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한국어 교육에 적용해 보면, 어원을 활용한 어휘 교육은 매우 유용할 수 있다. 한자어권 학습자의 경우에는 한자어계 귀화어를 알면 한국어 어휘 습득이 간단해 질 수도 있다. 문법화의 예도 한국어 학습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의존명사의 경우 원래의 의미를 아는 것이 의미를 명확히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대적인 측면에서도 언어의 변화는 한국어 교육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특히 어휘는 변화가 매우 빠르다. 교재에 나오지 않는 어휘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사용된다. 이것을 우리는 신어, 유행어라고 한다. 이러한 어휘가 교재에는 나오지 않지만 실생활에서는 훨씬 빈번히 사용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실생활에는 자주 쓰이지만 언어 규범에 들어오지 않은 어휘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다.

언어 변화는 한국어 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 교육의 현장에서 언어변화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연구는 잘 보이지 않는다.¹⁾ 본 발표에서는 언어 변화가 한국어 교육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한국어 교육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해 보고자 한다.

2. 언어 변화와 관련된 한국어 교육의 범위

본 발표에서는 어원 연구와 한국어 교육,²⁾ 귀화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문법화와 한국어 교육, 신어와 유행어 교육 등으로 나누어서 언어 변화와 관련된 한국어 교육의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어원 연구와 한국어 교육

영어 교육에서 어휘 교육이라고 하면 어원을 통한 교육이 생각날 정도로 어원은 어휘 교육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한국어 교육에서 어원은 어느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가? 어원을 활용한 교육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휘 교재와 어휘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어원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어원 연구가 어려운 분야라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 어원 연구 자체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원 연구와 어휘 교육을 동시에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어원에 관한 연구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어휘 교육에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어원’이 활용되기 어려운 이유로 ‘어원에 대한 학설이 다르다는 점’도 들 수 있다. 하지만 어휘 교육에서 ‘어원’은 ‘교육’이 목적인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교육적 흥미 유발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조사된 어원 연구를 한국어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³⁾

(1) 어원 연구는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어휘 교육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한국어 어원 연구는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원을 재구하는 데 너무 복잡한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沈菜’가 ‘김치’로 변화하는 현상을 설명한다면 학습자는 오히려 어휘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 물론 간단하게 김치가 채소를 담가 먹던 것에서 유래하였다는 정도의 설명은 가능할 것이다. ‘짐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衆生’에서 언

1) 전정례(2005:11)에서는 ‘언어 변화 이론은 변화 이전과 변화 이후를 견줄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해야 하며, 변화 과정에 작용하는 원리와 변화 요인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언어 변화 교육은 이것이 학습에 유의미한지 판단하고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어원을 통한 한국어 어휘 교육에 ‘귀화어, 문법화’ 등은 포함시킬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따로 제시하였다.

3) 조현용(2000:225-243)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정리하였다.

어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치미를 떼다’나 ‘어처구니가 없다’의 경우도 단순히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겠으나 학습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⁴⁾

많은 어원 연구가 한국어 교육에서는 전문적인 내용에 해당할 것이다. 향후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교육용 어원을 선별하는 연구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⁵⁾

(2) 설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설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은 ‘설명’이 어휘 학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 어휘에 해당하는 어원 설명이라면 단순히 어휘를 암기하면 된다. 어휘 교육에서 어원을 교육한다는 것은 어휘 확장에도 도움을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어원을 재구할 때, 명사에서 동사와 형용사로 변화하는 어휘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신 - 신다, 발 - 뛴다, 다리 - 달리다, 배 - 배다, 품 - 품다, 빗 - 빚다

이상의 예들은 모두 명사에서 용언으로 변화한 예들이다. 또한 신체와 관련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학습자들에게 ‘신, 발, 다리, 배, 품, 빗’과 연계하여 동사를 설명하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한국인의 사고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여야 한다.

어원이 한국인의 사고를 나타내는 데 유용한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한국인의 사고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외국인 학습자가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색을 표현하는 방식은 매우 구체적이다. 즉,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어 색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색을 표현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일 수 있다. 수박색, 밤색 등이 대표적이다.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살색’도 같은 종류의 어휘이다. 그런데 주요색(빨강, 파랑, 노랑, 하양, 검정 등)의 경우는 어떠한가? 분명 주요색의 경우도 원래는 구체적인 대상과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원래의 구체적인 대상과 연관 지어 설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색채어도 어원을 활용해 보면 설명이 가능하며 색과 어휘간의 연결고리를 보여줄 수 있다.

예) 불 - 붉다, 풀 - 푸르다, 희다(해), 누렇다(누리)

4) 학습자의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어원은 유래담과 함께 읽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강현화 · 이미혜(2011:83-98)에서는 어휘 교육의 내용으로 ‘조어법에 따른 어휘 교육, 어휘 의미 관계에 따른 어휘 교수, 기타 어휘, 구로 나타나는 어휘 교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어휘교육의 내용에 어원과 관련된 것은 나와 있지 않다. 이는 일반적으로 어원과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음교체에 의한 어사분화도 한국인의 사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국어 어휘는 어사분화를 통해서 사람과 사물의 차이를 설명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낱다/늪다, 었다/얏다, 머리/마리’ 등의 경우가 그것이다. 어휘의 공통적인 의미는 있으나 의미 차이를 갖고 분화하는 것이다. ‘나/너/누’, ‘남/놈/넙’ ‘놓다/넙다/날다’ ‘훔다/훔다’ 등의 예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2) 귀화어(歸化語)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⁶⁾

한국어 교육에서 ‘귀화어’를 집중적으로 다룬 예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차용어의 경우는 외래어의 차원에서 교육 방안이 논의되기도 한다. 외래어는 현재 한국어 화자들이 순 우리말은 아니지만 우리말 속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어휘들이다. 따라서 기원적으로 한국어가 아니라는 의식이 강한 어휘들이다.⁷⁾

한국어에서 한자를 비롯한 서양어, 일본어 등의 차용어가 들어 있지 않은 어휘를 우리는 순우리말이라고 한다. 하지만 보통은 순우리말이라고 하면 한자어가 아니라는 의미가 강하다. 한자어의 홍수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어휘를 순우리말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알타이 어족이니 고아시아 어족이니 할 때, 모든 어휘들이 순수하게 우리말로 발전되어 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많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순우리말로 다루어야 할지 애매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한자어의 원래 의미가 사라져서 어원에 대한 인식이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한자라는 의식도 사라지게 된다. 이는 한자어가 귀화어가 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아찌’의 경우에 ‘장(醬)’이라는 어휘가 포함되어 있지만 형태가 변화하여 어원 의식이 멀어지게 된 것이다. ‘장아찌’는 중세국어에서 ‘장엿디히’로 나타나는데, 이는 ‘장(醬)’에 담긴 ‘디히(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엿디히’라고 할 때는 ‘장’의 의미가 분명한데, ‘장아찌’라고 할 때는 어원에 대한 의식이 없어져 한자어라는 의식도 약해지게 된 것이다. 즉, ‘장아찌’로 되면서 귀화어가 된 것이다.

한자어만 이루어진 어휘의 경우는 비교적 뚜렷하게 한자어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한자 어휘는 한자어로 인식하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말과 한자어의 동의중첩(同義重疊)으로 이루어진 어휘는 한자가 담겨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우리말과 합성된 한자어도 한자가 담겨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자의 발음이 달라져서 변화하여 온 어휘는 어원에 대한 의식이 없어져 한자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⁸⁾ 이렇게 언중들이 한자어를 우리말 어휘로 인식하게 되는 것을 귀화어(歸化語)라고 한다.⁹⁾ 한자어계 귀화어의 경우에는 한자권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중요한 어원이 된다. 따라서 이런 어휘의 목록을 정리해 두고 설

6) 조현용(2009)의 ‘한자어계 귀화어의 유형 연구’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7) 외래어는 한국어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외래어가 그만큼 한국어에서 자주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래어가 시간이 흘러 귀화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8) 이와는 반대로 한자어가 아님에도 건강부회하여 한자어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올에 > 우뢰(雨雷) 같은 예이다.

9) ‘뽕’이나 ‘담배’, ‘남꽃불’ 등을 순우리말로 인식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인식하게 된 것을 귀화어라고 한다. 본고에서는 한자어가 귀화어가 되는 현상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하였다.

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귀화어로 볼 수 있는 예들을 몇 가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¹⁰⁾

- 괴롭다 : ‘고(苦)롭다’에서 온 말이다. ‘이(利)롭다, 해(害)롭다’와 연관 지어 살펴볼 수 있다. ‘고(苦)’가 ‘괴’로 변화하여 어원의식이 약해진 예이다. ‘괴롭히다’와 같이 사동형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더욱 어원의식이 약해질 수 있다. 어근이 1음절 한자어인 경우에 어원 의식이 얼어짐을 알 수 있다.
- 긴가민가 : 긴가민가는 ‘기(其)인가 미(未)인가’에서 온 말로 보인다.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의 의미로서 ‘기(其), 미(未)’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원 의식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 겨누다 : ‘겨누다’는 ‘견(見)우다’로 볼 수 있다. 겨누는 행위가 눈으로 보는 행위이므로 ‘見’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 접사 ‘-우-’가 붙는 형태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견주다 : ‘견주다’는 ‘어깨를 견(肩)주다’에서 볼 수 있듯이 ‘어깨’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동의 중첩으로 볼 수 있다. 단, ‘견 + 주다’의 구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견디다’의 경우도 ‘견(肩)’과 관련된 어휘라고 할 수 있다. ‘肩’의 의미를 ‘어깨, 견디다’로 해석하는 것은 견디다와 견의 관련성을 높여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 잠기다 : 잠기다의 경우에는 ‘잠(潛)’과 관련되는 어휘라고 할 수 있다. 의미가 명확하게 공통된다는 특징이 있다. 단, 앞의 ‘겨누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접사 ‘-기-’가 결합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¹¹⁾
- 신나다 : ‘신나다’는 ‘신(神)이 나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의미로 ‘神明(神明)이 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신(神)’의 의미를 추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 전혀 : 전혀는 ‘완전히’라는 의미인데, 현대어에서는 부정 표현과 호응한다. 사용 범위가 좁아지고, ‘전(全)’을 독립적으로 쓰는 경우가 없다는 점이 ‘전혀’를 귀화어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혀’의 ‘전’에 대한 어원의식이 적어진 것이다.
- 귀찮다 : ‘귀찮다’의 경우는 ‘귀하지 않다’가 줄어든 말이다. 따라서 ‘귀’는 ‘귀(貴)’라고 할 수 있다.

10) 본고에서 제시하는 어원 중에는 부분적으로 학자 간에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고의 예는 한자어의 어원 의식이 얼어져 한자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예를 보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11) ‘잠잠하다’의 경우는 ‘잠[眠]’과 ‘潛潛’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에 잠기다’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潛潛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고, ‘잠자코’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잠’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즉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귀찮다’이다. 그런데 귀찮다가 부정 표현으로만 쓰인다는 점과 귀하
다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귀화어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후(厚)하다 / 박(薄)하다. : ‘하다’ 동사 앞에 있는 1음절의 한자어는 어원 의식이 회박하다.¹²⁾ 1음
절의 한자어의 경우는 완전한 자립어간이 되기도 하고 어근이 되기도 하는데, 어근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어원의식이 회박해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과 악의 경우는 자립어간과 어근으로 모
두 쓰여 한자어라는 의식이 분명하지만, ‘후하다, 박하다, 족하다, 궤하다’의 경우는 한자어라는 의식
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다.

3) 문법화와 한국어 교육¹³⁾

한자어가 문법화할 때에 의미 변화가 수반되어 한자어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순우리말 어
휘도 문법화하면 원 의미와의 관련성이 멀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조사 ‘-조차’의 경우 ‘좃다’와의
유연성을 일반 언중들이 인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¹⁴⁾ 의존명사는 문법화와 관련을 맺는 경우가 많
다.¹⁵⁾ 실질명사에서 문법적 기능만 하는 문법 요소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법화한 표현 중에
는 한자어의 의미가 그대로 연계되는 것이 있어서 주목된다. 다음의 예는 비교적 한자어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예이다.

겸 : -을 겸(兼)

인 : -로 인하여(因)

편 : -는 편이다(偏)

한 : -는 한(限)

이상의 예는 ‘겸하다, 원인, 편, 한계’ 등의 의미가 남아있어서 한자어가 기원임을 비교적 쉽게 추
론할 수 있으나, 모국어 화자는 한자어가 문법화 하여 원 의미와의 관련성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음의 예는 원래 의미와 의미적 연관성이 멀어져서 모국어 화자가 한자어로 생각하지 않게
된 것이다.

고사 : -는 고사하고(固辭)

모양 : -는 모양이다.(模樣)

12) 심재기(1987:31)에서는 1음절로 되어있는 한자 어간형이 많음을 설명하고 있다.

13) 조현용(2005)의 ‘문법화와 한국어 문형 교육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고 보완하였다.

14) ‘-밖에(밖), -부터(불다), -는 바람에(바람), -는 김에(김)’ 등의 예들도 한국어 교육에서 언어 변화와 연관
지어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15) 안주호(1996)에서는 의존명사화를 비롯한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리 : -을 리 없다(理)

법 : -는 법이다, -을 법하다(法)

수 : 할 수 없다(手) 별수 없다

십상 : -기 십상이다.(十常)

축 : -는 축에 들다(軸)

‘리, 수’ 등은 우리말의 대표적인 의존명사이다. 이러한 의존명사가 한자에서 기원하였다는 사실은 한자어의 영향력이 매우 포괄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리’는 ‘이유(理由)’와 ‘수’는 ‘수단(手段)’과 관련되어 있음을 교육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의 경우는 ‘법이다’는 한자어 ‘법(法)’과 연관성이 남아있으나 ‘법하다’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련성이 더 적다. 이는 한자어가 의존명사화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십상이다’의 경우는 십상팔구(十常八九)의 십상이 의존명사화 한 것이다. 하지만 언중들은 ‘쉽다’와 연관성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자어와의 관련성은 거의 모국어 화자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¹⁶⁾

이렇게 한자어에서 문법화한 표현들은 한자권 학습자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표현의 목록을 정리하고 교육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신어(新語)와 유행어 교육

어휘나 표현은 시대에 따라 급격히 변하기도 한다. 특히 대중매체가 발달한 요즘 변화의 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해마다 무수히 많은 신어가 생겨난다. 어떤 신어는 급속도로 한국어 속에 자리를 잡아서 사전 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생겨났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¹⁷⁾ 예를 들어 ‘왕따, 공주병, 왕자병, 롱다리, 숏다리’ 등은 새로운 어휘로 거의 자리를 잡았고, ‘몸짱, 얼짱, 된장녀, 꿀벅지, 훈남’ 등은 신어로서 사회성을 획득하고 있는 중이다.¹⁸⁾

신어 중에는 유행어가 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유행어는 신어 외에 기존에 쓰이는 말이나 표현이 매체 등을 통하여 급격히 쓰이게 된다. 이러한 유행어는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기도 하며, 언어유희를 반영하기도 한다. 따라서 외국어를 학습하는 사람들에게는 흥미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모국어처럼 발화하려는 욕구로 학습하게 되는 어휘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이해에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유행어는 TV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생산된다.

또한 호칭어 등의 변화도 유행어처럼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주목된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손님 대신 ‘고객님’을 사용하고 있다. ‘아가씨, 언니, 여사님’ 등의 호칭을 어느 경우에 써야 할지는

16) 한자어의 문법화는 귀화어와 관련이 되는 경우가 많다.

17) 많은 코미디 프로그램의 유행어는 생명력이 짧은 편이다.

18) 2014년에는 ‘열정페이, 인구론, 자소설’ 등이 유행어로 조사되었다.

한국어 모어화자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¹⁹⁾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 중에서 학문 목적 학습자는 대학생의 유행어, 은어에 대해서도 학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해 차원에서의 접근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²⁰⁾

3. 언어 변화 교육과 가치 교육

언어 변화에 대한 교육, 가치에 대한 교육은 전통적인 언어교육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전통적 언어 교육이 한국어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가치’의 문제 때문이다.²¹⁾ 현재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언어 교육학에서 부족한 부분을 전통적인 언어 교육이 해결해 줄 수도 있다. 현재의 언어 교육이 동시대인과의 ‘의사소통’을 중요시 하고 있다면, 전통적인 언어 교육은 과거의 성인(聖人)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하였다. 한국어 교육에서 언어 변화에 관심을 갖는다면 ‘가치 교육’과도 연관을 맺게 되는 것이다.

1) 말의 타락²²⁾과 한국어 교육

말은 살아있다. 그래서 말이 담고 있는 세상에 따라 말의 의미가 변화하기도 한다. 말도 생로병사의 현상을 겪게 된다. 시대에 따라 말은 새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生) 그리고 말은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생명력을 키워간다. 말은 자라기도 하는 것이다.(老) 그러나 사용하는 환경이 변화하면서 말은 타락하게도 된다. 이를 굳이 비유하자면 병(病)이 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본다. 어차피 언어는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단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死) 그 단어가 지칭하던 대상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연스럽게 단어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말의 타락’을 논하려고 하지만 언어 신성관이나 언어 권위관과는 다른 관점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본래의 좋은 의미가 사라진 어휘나 표현을 ‘말의 타락’이라고 보는 것이다.²³⁾ 우리 삶에 기준이 되고, 철학이 되고, 종교가 되는 어휘들이 원래의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은 우리의 정신사에 안타까움을 준다. 다른 어휘보다 이러한 어휘, 표현의 의미가 변화하는 것은 단순히 언어의

19) 최근 ‘여사님’의 경우는 ‘일을 도와주는 나이 드신 여성분’에 대한 호칭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20) 박영순(2001:94)에서는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의 조급함이나 인터넷 사용의 익명성, 은밀성과 같은 특성 때문에 언어 규범 파괴, 언어폭력까지 등장하게 되었는데, 외국어 교육에서는 최대한 규범적인 표준 한국어를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의사소통의 입장에서 본다면 표현과 이해가 구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1) 유네스코는 21세기의 세계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1 세기 교육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는데, 1996년에 유네스코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미래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① 알기 위한 교육(learning to know), ② 행동하기 위한 교육(learning to do), ③ 참인간이 되기 위한 교육(learning to be), ④ 함께 사는 것을 배우는 교육(learning to live together)’이라고 했다.(이삼열(2003:11) 참조)

22) 조현용(2011)의 ‘말의 타락과 한국어 교육’을 정리하고 보완하였다.

23) 박성배(2007:69-71)에서는 이 세상에는 좋은 말들이 많지만, 이를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그 말은 생명력을 잃게 된다고 하였다.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박성배(2009)에서는 이러한 언어의 타락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인류는 많은 신성한 단어들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그 근원적인 의미는 완전히 파괴되었거나 모두 사라졌다. 몇 개의 예를 들면, 도교의 ‘도(道)’, 유교의 ‘인(仁)’, 초기 중국 사교의 ‘체용(體用)(정수-기능의 의미)’ 등의 의미는 원래 순수하고 핵심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람들은 그 의미의 본래 메시지에 따라 수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이 단어들은 힘을 잃고 말았다. 이것은 인류 문명에 일어난 큰 비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국어 교육에서 주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말의 타락은 한국어 교육에서 가치를 중심에 두고 가르친다고 하면 교육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즉, 한국어 학습을 통해서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닌 한국인의 사고 및 가치관에 대해서도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야단법석, 화두, 허무, 언어도단, 무아지경 등

2) 가치 중심 한국어 교육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 교육이 대세인 현실에서 가치 교육을 이야기하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언어 교육에서 의사소통 못지않게 가치 교육은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²⁴⁾ 특히 언어 교육이 인문학이라면 한국인의 문화와 사고에 관한 교육뿐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깨닫는 과정의 역할도 해야 한다. 언어 변화에 대한 교육은 과거의 언어 표현이 담고자 했던 의미를 생각해 봄으로써 인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가르칠 때 의사소통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언어의 깊은 차원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언어를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사고와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정신적인 유산으로 본다면, 언어의 가치에 대해서도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고급 단계 이상의 학습자나 한국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학습자들의 경우라면 언어에 담긴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 제시된 어휘 및 표현들은 언어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언어 교육의 단계를 높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속담과 가치교육의 예

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 못 먹는 감 찢러나 본다. / 품안의 자식

* 어휘와 가치 교육의 예

24) 특히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가치교육의 측면이 강하다.

예) 돌보다 / 사랑하다 / 여의다 / 싫다 / 귀찮다

4. 맺음말

본 발표는 언어 변화가 한국어 교육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언어 변화는 한국어 교육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언어 변화를 교육하면 ‘어원, 귀화어, 문법화’ 등을 활용해서 한국어 학습자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에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언어 변화를 교육함으로써 과거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과거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이 인문학적인 가치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언어 교육의 목적에서 ‘가치’가 중요하다면 언어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어 교육에서 언어 변화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 강현화·이미혜(2011), 한국어교육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중택(1993), 국어어휘론, 서울 : 탑출판사.
 박성배(2007), 몸과 몸짓의 논리, 민음사.
 박성배(2009), One Korean's Approach to Buddhism, SUNY Press.
 박영순(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월인.
 박재양(2006), 추녀와 처마의 어원, 인문과학 제38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서정범(1989), 우리말의 뿌리, 고려원.
 성환갑(1987), 고유어의 한자화 과정, 국어생활 8, 국어연구소.
 심재기(1994), 숨어있던 복합어에 대하여, 우리말 연구의 샘터, 연산 도수희 선생 화갑기념논집.
 안주호(1996),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유창돈(1964), 이조 국어사 연구, 선명문화사.
 이광정(2003), 고유어와 한자어의 어휘적 특징, 국어문법 연구, 역락.
 이삼열(2003), 국제이해교육의 철학과 역사적 발전, 세계화 시대의 국제이해교육, 한울아카데미.
 전정례(2005), 언어변화이론, 박이정.
 조세용(1986), 한자어에서 개주된 귀화어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조세용(1999), 한자어계 차용어의 개주 귀화 현상에 관한 연구, 한글 243, 한글학회.
 조항범(1997), 다시 쓴 우리말 어원 이야기, 한국문원.
 조현용(1996), 동의중첩에 의한 단어형성 연구, 어문연구 9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조현용(1998), 수량 단위명사의 어원 연구, 어문연구 99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조현용(1999), 한국어 어휘교육과 어원교육, 어원연구 2호, 한국어원학회.
 조현용(2000), 한국어 어휘교육 연구, 박이정.
 조현용(2005), 문법화와 한국어 문형교육 연구, 교육발전연구 제21권 1호, 경희대학교 교육발전연구원.
 조현용(2008), 가치 중심 한국어 교육 연구, 한국어 교육 제19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조현용(2009), 한자어계 귀화어의 유형 연구, 언어연구 제26권 제2호, 경희대학교 언어연구소.
 조현용(2011), 말의 타락과 한국어 교육, Ceesok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12, 중동유럽한국학회.
 조현용(2013), 소통 중심 한국어 문화교육에 대하여, 한국어문화연구 제1권 1호, 한국어문화연구센터.
 조현용(2014), 한국어 문화교육 강의, 도서출판 하우.

*초청 특강

2019년대 독일어 교사 양성 과정의 새 움직임

안미란(독일문화원 / 교육협력부)

1. 괴테-인스티투트

괴테-인스티투트(한국에서는 주한독일문화원)은 독일연방공화국의 공식적인 문화 기관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나 대사관과는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며, 총무부, 어학부, 도서관, 문화부로 나뉘어져 있다. 본부는 뮌헨에 있고 전 세계 괴테-인스티투트는 13개의 지역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동아시아 지역에는 몽골(울란바토르), 중국(베이징), 한국(서울), 일본(도쿄, 오사카), 타이완(타이페이), 홍콩이 속하며, 서울의 원장이 동아시아 지역대표가 된다. 직원은 주재원(원장, 부원장 겸 어학부장, CFO, 도서관장, 문화부장)과 현지 직원으로 구성된다.

2. 괴테-인스티투트의 교사 양성 프로그램: 그린 디플롬(Grünes Diplom)

그린 디플롬은 괴테-인스티투트 자체의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며, 전공에 관계 없이 대학을 졸업하고 C1 이상의 독일어 능력을 갖춘 지원자들이 약 2년의 과정을 거쳐 독일어 강사가 되는 과정이다. 과정을 마칠 때까지 C2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기본 틀은 아래와 같다.

- 1 단계: 다가가기 (4주~6주)
- 2 단계: “DLL” 여섯 권의 기초 과정 수료 (66주 정도)
- 3 단계: 독일에서 열리는 세미나 (2주)
- 4 단계: 괴테-인스티투트에서 추가로 필요한 내용

3. DLL (“Deutsch lehren lernen”), 2012–

기존의 통신교재였던 „Fernstudienreihe“을 대체하고 앞으로 교사 양성과 직중 연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괴테-인스티투트에서 개발한 자료이다. 기본 과정 여섯 권은 2014년 가을에 출간이 완료되었으며, 개별적인 주제에 관한 다른 모듈도 계획되어 있다.

3.1. 기본 과정 여섯 권(모듈)

1권은 교사의 자질과 수업 형태, 2권은 외국어 학습, 3권은 낯선 언어 독일어, 4권은 과제, 연습, 상호작용, 5권은 수업 자료와 미디어, 6권은 교육 과정과 수업 계획을 다루고 있는데, 책으로 된 교재에는 수업 녹화가 들어 있는 CD-ROM, 같은 동영상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QR-Code가 포함되어 있다.

교재가 책으로 출간되기는 하지만, 괴테-인스티투트의 DLL 과정은 연수는 무들에서 이루어진다. 무들에서는 책과 동영상에 접근하고 그룹이 함께 토론할 수 있으며, 트레이너의 지원을 받는다. (www.goethe.de/dll, “Probekapitel”)

3.2. 이론적 기반

무들에서의 토론은 참가자들 간의 **교류와 성찰**을 통한 학습이라는 DLL의 이론적인 기반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9주간의 온라인 학습에 이어지는 2주간의 현장 연구 프로젝트에서 참가자들은 세 명씩 그룹이 되어 자신의 수업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 보고 그 경험을 함께 나누고 마지막으로 발표를 함으로써 배운 내용을 바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된다.

3.3. 각 모듈의 진행: 오프라인 – 온라인 – 오프라인

9주간의 온라인 과정의 전후에는 2일간의 오프라인 세미나가 열린다. 오프라인 세미나에서는 각 모듈의 내용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정리가 이루어지고 질문들을 다루며, 각 그룹이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4. 교사 양성 과정 운영을 위한 동아시아 지역 내 인스티투트들의 협력

동아시아지역에서는 2011년부터 해마다 양성 관계자들이 만나 교사 양성 과정의 표준화

를 논의하였으며, 2014년부터 실제로 DLL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협력은 온라인 강좌의 공동 운영, 지역 내 트레이너 양성,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긴밀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인스티투트에서 혼자 양성 과정을 전담해야 했던 담당자들의 부담이 줄 뿐 아니라 자체 양성 과정을 운영하기 힘든 작은 인스티투트들도 교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3/14년 겨울에 한국에서 시작한 DLL 온라인 과정에 2014년 봄에 일본이, 그후로 타이완과 몽골이 추가되었고, 2014년 겨울에는 중국 파트너학교 교사들이 참가하게 됨으로써 인원이 40명을 넘어 두 개의 그룹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트레이너들이 적어도 각 인스티투트에 한두 명씩 필요한데, 이들을 양성하기 위해 2014년에는 홍콩과 베이징에서 세미나가 열렸고, 2015년에는 타이페이에서 두 번째 그룹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양성 과정은 3주간의 온라인 연수와 5일간의 오프라인 연수를 포함하며 본부에서 양성을 받은 멀티플라이어들이 주로 진행한다.

5. 각국 교육기관과의 협력

괴테-인스티투트는 활동하고 있는 나라에서 독일어를 가르칠 뿐 아니라 그 나라의 교사 양성, 연수 과정을 학회와의 협력, 교사 연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독일어 교육의 지표가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국 교육 당국, 교육 기관과 함께 DLL을 이용하는 교사 양성, 연수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어교육과에서 DLL을 교과 과정에 수용하였으며, 중국에서는 파트너학교, 협력 기관인 어학센터 강사들에게 지역에서 함께 운영하는 DLL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있다.

■ 참고 문헌 ■

Goethe-Institut. 2014. Handbuch zur Durchführung einer Fort- und Weiterbildung mit Deutsch Lehren Lernen. Stand: Juni 2014.

Goethe-Institut. 2014. Das grüne Diplom: Leitfaden zur Durchführung der standardisierten Qualifizierung für DaF-Lehrkräfte an Goethe-Institute im Ausland.

www.goethe.de/dll

<https://www.goethe.de/ins/kr/ko/spr/unt/for/gia.html>